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말씀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네게 영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8월 25일 (토) 제 169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믿음으로 준비하는 “백투스쿨” !

‘2018 “Back To School” ...교육 전문가에게 듣는 크리스천 부모의 준비과정 소개

아이들 개학준비가 벌써 시작이다. 등을 떠밀어가며 밀린 방학 숙제를 끝내기에도 버거운데, 새 학기 새 학년을 맞는 자녀를 준비 없이 학교로 보내자니 부모 마음이 찢어진다. 이처럼 개학을 앞두고 백투스쿨 소풍이 시작됐다. 필요한 학용품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교를 앞둔 자녀의 생활습관을 다시 챙기는 게 더 필요하다.

교육 관계자들은 “여름방학동안 느슨했던 생활습관을 지금부터 고치지 않으면 학교가 시작될 때 적당히 힘들어진다고 학부모들에게 조언했다. 책가방을 가득 채운 새 학용품도 중요하고, ‘개학중후군’ 없이 새 학년을 맞도록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돕는 관심도 필요하지만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신앙 준비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학의 ‘맛’은 단연코 늦잠이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학원이다, 과외다, 바른 일정을 보내지만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등교해야 하는 학기가 시작될 때의 스트레스는 당사자인 학생이 지켜보는 부모이긴 극에 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방학동안 집에서 지켜왔던 규칙을 느슨하게 보았다면 다시 조절을 시작할 때다. 생활리듬을 찾는 건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키티가튼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된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할 건 잠자는 시간이다. 지금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겨 자녀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7시 45분이다. 이 시간까지 등교하려면 최소한 오전 7시에는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어야 한다. 결국 방학동안 취침시간과 기상 시간을 들쭉날쭉 보낸 학생들은 개학 후 빨라진 기상시간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금부터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잘 때 방해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게임기 등을 방 안에서 치우고, 낮잠을 자던 아이라면 정해진 수면 시간에만 잘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했다. 또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마무리 짓는다. 특히 학교에 처음 등록하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 기록이 있어야 등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챙겨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특히 수업 스케줄이 바뀌는 만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고등학교는 전입해오는 학교들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수업 스케줄을 설



명해주기도 하고, 집으로 스케줄을 미리 보내주기도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부딪히면 어디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긴다.

학교도 개학 첫 1-2주는 학생 못지않게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수업 스케줄을 챙기는 것이 좋다.

자녀가 어려다면 부모가 미리 스케줄을 챙겨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설명해주는 게 좋다. 스케줄뿐만 아니라 학교 등교시간, 누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픽업하는 지, 방과 후에 애프터스쿨은 어디서 하는지, 특별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등도 자세히 알려줘 개학 첫 날부터 헛갈리지 않게 한다.

또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녀에게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좋

아하는 수업시간은 재미있었는지를 질문하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을 알린다.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가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준다면 자녀도 쉽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개학 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업 과제물이다. 게다가 과제물 평가 항목은 학점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첫 학기에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개학 후에는 종종 자녀에게 숙제가 힘들지 않은지 물어보고 힘들다고 말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게 좋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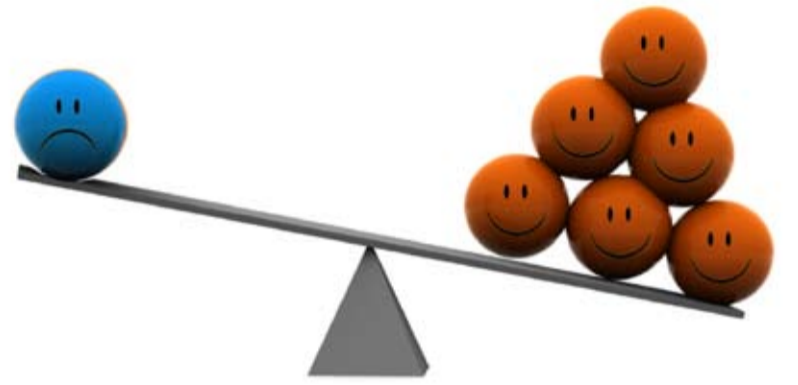
25% 움직이면 전체가 바뀐다!

사이언스, 연구 통해 전 사회적 변화 위한 티핑 포인트 숫자 제시

소수의 생각을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사이언스지(Science)에 발표된 새 논문(Tipping point for large-scale social change)에 의하면, 대규모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약 25%의 소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사회적 티핑 포인트는 직장 내 기준이나 모든 사회 운동 및 주도권을 잡는데도 적용된다.

THE TIPPING POINT



현신적인 소수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바꿀 수 있어 단 한 사람 차이로 변화 성패 좌우...개인적 보상 효과적 친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사회적 결과도 동일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할 내용의 종류부터 사용하는 언어에 보여야 할 예의에 이르는 여러 규범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최근 미국 대중의 태도가 동성 결혼, 총기 관련 법률 혹은 인종이나 양성평등 같은 문제를 비롯해 대중이 받아들이는 (혹은 거부하는) 신념이나 의견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또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난 50년간 많은 기관과 커뮤니티는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관찰만으로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소수의 숫자를 찾는 시도를 해왔다. 연구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10%에서 40% 사이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사회 다이나

믹은 복잡하고, 역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재생해 사회 운동가 그룹의 크기가 더 크거나 더 작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사이언스 지에 발표된 연구의 주 저자이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공학 및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아넬버그 스텔의 조교수인 데이먼 셀톨라 박사는 “본 연구에서 우리는 그룹의 규범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소수 그룹의 크기를 예측하는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해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I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16면
17면
18면
19면
20면
21면
22면
23면
24면
25면
26면
27면
28면
29면
30면
31면
32면
33면
34면
35면
36면
37면
38면
39면
40면
41면
42면
43면
44면
45면
46면
47면
48면
49면
50면
51면
52면
53면
54면
55면
56면
57면
58면
59면
60면
61면
62면
63면
64면
65면
66면
67면
68면
69면
70면
71면
72면
73면
74면
75면
76면
77면
78면
79면
80면
81면
82면
83면
84면
85면
86면
87면
88면
89면
90면
91면
92면
93면
94면
95면
96면
97면
98면
99면
100면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은혜받는 습관,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살피심, 페이버

후원: 기독교서적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두란노서원, 말씀사, 베델서적, 조이서적

편한 기도에서 산고 겪는 기도로!

CT. 스코틀랜드 열도 영적 대각성 역사현장 통해 배우는 크리스천 기도 자세 소개

1949년에서 1952년까지 헤브리디스 제도로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 열도에서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대각성!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루이스와 해리스 섬을 휩쓴 그 영적 각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한 마음과 좌절을 진실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서구 사회의 진정한 영적 각성으로서 마지막이었다고 확신한다.

헤브리디스 대각성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을 읽다가, 나는 영적 절망에 빠져 있던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모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당시 사건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

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스코틀랜드 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놀랍게도 나는 열한 명의 목격자들을 만났다. 현재 그들은 80대다. 그들은 대각성의 발화점이 됐던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How History's Revivals Teach Us to Pray: The case for communing with God in a daring and agonizing way).

(이 글의 저자 데이빗 R. 토마스 목사는 UMC 소속으로, 영적 대각성을 갈망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네트워크 사역 단체, Newroom.co의 사무국장이다.)

겨울의 황량한 바깥 풍경과는 달리, 나의 새 친구가 된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짚으며 온화한 기운을 발산했다. 강력한 설교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대각성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일어난 각 사람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대각성의 핵심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자세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씨름했다. 이러한 내 기도는 타당하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셔야 한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미국의 위대한 사상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산고의 기도를 처음 소개하고 그것이 널리 퍼져나가게 목소리를 발하게 되면서, 비로소 미국의 대각성도 시작됐다.

1차 대각성운동의 진원지인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에드워즈는 기록했다.

해산의 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 중요

방해요소: 기도응답 못 받을 때 두려움 없애려는 방어적 기도

‘내가 모르면 문제 아니다’ 안락한 환경, 높은 자리

나는 그들에게서 당시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흔들여 놓는 파괴와 좌절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들었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대담하게 드린 기도가 그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산고를 겪는 기도(travailing prayer)”라 불렀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하면서 했던 바로 그 기도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갈 4:19).

우리가 다시금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각성을 경험했던 그분들의 눈을 들여다본 이후로 나는 지금 시대와 그 시대를 이어주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임을 확신하게 됐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성경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출2:23)와 자식을 구하는 한나의 가슴 미어지는 기도(삼상1:15)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읽었다.

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사62:7)는 이사야의 다짐과 “피가 사람의 허리에 속할 같이”(렘13:8-11) 하나님께 매달리려는 예레미야의 끈기를 보았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시142:6)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절규도 있었다.

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눅19:41), 그리고 겹세마네 동산에서(눅22:44),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골5:7)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신 예수님의 기도와 궤적을 같이 한다.

또한 성령강림을 고대하는 제자들과,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롬 15:30)라고 간청한 바울에게서도 이와 동일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엡6:18) 기도한다는 것과,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 구 하신다”(롬 8:26)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나는 편한 기도

(casual prayer), 즉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읊조리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에 가까운 기도는 산고의 기도,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내가 만났던 분들을 압박하고 부담을 느끼게 했던 그 기도임을 깨닫게 됐다.

이러한 기도 자세는 초대 교회로부터 종교개혁까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어머니의 눈물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마르틴 루터는 친구 필립 멜란히톤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곧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인 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대목에서 에드워즈는 네 살 난 피비 발레의 기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기도를 우연히 듣고 어머니가 놀랐던 이유는 “그 아이의 기도가 너무도 끈질기게(importunate and engaged)”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성가실 정도로 끈질기다-importunate”라는 뜻의 단어는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떡을 꾸어달라고 조르던 사람(눅11:5-8)과 오만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눅18:1-8)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산고의 기도 특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포착했다.

(3편으로 계속)



시론

망해야 산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 여름 한국에 가서 무엇보다 피부로 느낀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맘몬이즘에 함몰되어 있고 영적인 무기력증,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분쟁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끝도 없는 소모전으로 교인들끼리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이 택시를 탔는데 자기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자기 교회를 가리키더니 “저 교회가 싸우고 있다,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욕을 하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감히 밝힐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지력을 상실한 두 교회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돌아왔다.

얼마 전 한국교회회복자문리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거기에서 발제자로 나선 손봉호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교회에 와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목회해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혀 얻을 가망이 없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분명 이 말은 지나친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할 만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위기 상황이라고 자주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실 성령강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대교회는 탄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열흘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비로소 예수께서 이기셨던 사망권을 지니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었다. 비록 성령강림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단 일회적 사건이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가장 분명한 비결이 담겨 있다. 오순절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한 놀라운 부흥운동은 다 그런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영국은 우리와 같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그 영국을 강력하게 각성시킨 부흥 운동이 서쪽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다. 그 부흥운동의 한가운데 이반 로버츠가 있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그는 가난한 가문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러다가 부흥운동이 발화되기 11년 전부터는 남달리 기도에 열심이었고, 성경 연구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이반 로버츠는 “주여, 저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하고 부르짖었는데 성령께서 “네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체감되었다. 그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나는 어떤 살아 있는 힘이 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 갔는데, 거의 가슴이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러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끊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몰밀 듯 밀려왔으며, 심판 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그 기간에 고향의 모리아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처음 기도회에는 17명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오순절 성령강림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그 기도회가 커지게 되었고 소문이 나면서 기도운동이 시작되어 결국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여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2년간 전 세계에서 5백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존스톤 목사는 직접 웨일즈 지역을 방문한 후에 1906년 9월 서울의 장로회연합회에서 자기의 목격담을 이야기하였다. 그곳에 모인 선교사, 목사들이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아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했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그 이전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 유명한 1907년의 평양대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흥 역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부흥운동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모두가 간절하고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라오디게아교회처럼 결핍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도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망해야 한다는 손 교수의 말이 의미 있게 들린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i)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U)

최고의 교수진

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믿음으로 준비하는 “백투스쿨” !

(1면에서 계속)

자녀도 성적이 안정되면 학교생활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개혁을 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 지냈던 일들을 묻고 이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남은 방학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그동안 보낸 시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거나 여행지에서 함께 촬영했던 사진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이다. 당시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던 일들을 기억하고 이를 일기장에 옮겨 쓰다 보면 지난 2개월 동안 보낸 시간들이 차례로 정리된다.

이제 신앙 차원에서 “백투스쿨”준비를 해보자.

새해가 시작되며 세웠던 자녀의 기도

훈련이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개혁은 다시 찾아온 기회다. 학년에 따라 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3분 기도’가 적절하다고 귀띔한다.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부모는 함께 자리를 지키며 기도습관이 배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좋다. 기도가 서투른 아이를 위해, 하루는 엄마가 다음날은 아빠가 그 다음날은 아이 순서로 기도하는 방법도 좋다.

월요일은 가정을 위해,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수요일은 아이의 비전을 위해 등 요일별이나 날짜별로 주제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저학년의 경우 달력에 스티커를 붙여가며 시행 여부를 점검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힘들지만 집에서 성경과 친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자녀와 말씀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에 맞춘 눈높이 성경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성경’ ‘만화로 읽는 성경’ ‘풀이 있는 성경’ 등 현대 영어로 풀어쓴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성경책 한권을 내밀며 “읽어라”라고 하기보다는 “아빠와 매일 5장씩 읽어볼까”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 약속(?)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시작한 가정예배는 부모들의 영성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가정사역자들의 조언이다. 단 말씀을 읽건, 예배를 드리건 아이의 의견을 묻고 생각을 나누는 ‘적용’의 과정은 필수다.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우는 백투스쿨 준비,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자!

25% 움직이면 전체가 바뀐다!

(1면에서 계속)

10년 이상의 진행된 실험 연구를 통해 셸톨라 박사는 대규모의 사회 다이내믹 변화를 온라인 상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공동 저자인 조슈아 베커 박사, 데본 브랙벨 박사와 안드레아 바론첼리 박사가 함께 발표한 논문 “사회 관례의 티핑포인트에 대한 실증”의 연구에 참여자 20명으로 구성된 10개 그룹은 언어적 규범을 따를 경우 보상을 받았다.

언어 규범이 만들어진 다음, 규범에 반대하는 소수 반대자들로 하여금 전체 그룹의 규범을 바꾸게 독려했다. 실험에서 이 소수 반대자들의 숫자는 그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됐다.

소수가 전체 그룹의 25% 미만일 경우 변화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헌신한 소수가 25%에 이르렀을 때 그룹 다이내믹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매우 빠르게 집단의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였다. 한 실험에서는 단 한 사람의 차이가 변화의 성패를 좌우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 금액을 올려서 결과의 정확도를 실험했다. 기존의 규범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2배, 3배로 올렸을 때도 소수는 여전히 그룹의 규범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결과를 관찰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아넬버그 스쿨에서 네트워크 다이내믹 그룹을 이끄는 셸톨라 박사는 “사회가 대규모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에 이르지 못할 때 소수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한 명이 추가돼 25%의 티핑 포인트를 넘을 경우, 소수의 노력은 전체 그룹의 의견을 바꾸는데 빠른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자의 모델이 이야기하는 25%라는 정확한 티핑 포인트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정확한 숫자는 사람들이 규범을 기억하는 기간과 어떤 신념이나 행동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수많은 과거의 상호 작용에 근거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변화 요인에 의해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반면, 최근의 상호 작용만 고려한 사람이라면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 규범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운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백 년간 내려온 고전 경제학의 사회 변화에 대한 관점과 극명한 대조

를 보인다. 균형 안정성 분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모델은 진정한 사회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1%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훨씬 더 적은 사람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셸톨라 박사는 특히 개인적인 보상이 다른 사람들이 용인하는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의 능력과 직접 관련된 조직에서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셸톨라는 이 연구는 인터넷상의 정치적인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했으며, 중국 정부가 웨이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진정부 선전에 사용,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대외의 규범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 지를 예로 들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근본 신념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셸톨라의 연구 결과는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감소, 직장 내 성희롱 감소 및 운동 습관 개선과 같은 친사회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반대로 소수에 의해 인터넷 불매 운동이나 사이버 폭력 및 인종 차별의 집단적 폭발 등 대규모의 반사회적인 행동 또한 촉발할 수 있다.

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방어적 기도를 하게 한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돼 거의 거절에 가까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고민했다(고후12:7-9).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진짜 장애물이다. 그러나 나는 내 기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잠깐일 뿐 아니라 결국 기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산고를 겪는 기도”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의 만남은 내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을 더욱 밀접하게 만나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편한 기도에서 산고 겪는 기도로!

(2면에서 계속)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따금 내 기도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 않았는가?

북미 교회의 대다수가 그러하듯, 나 역시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그릇된 자아 인식으로 고통 받아왔다. 에스더처럼

나도 전체가 절망에 빠져 통곡하고 있는데도 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안락한 환경이나 높은 자리는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기도, 곧 켈세마네의 사람이 낳은 산고의 기도에서 멀어지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깊이 공감하며 담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목회와 부흥이야기(3)

2)교회에는 덕을

부흥회가 끝난 후 어려웠던 교회는 평안해져야 하고, 소란했던 교회는 잠잠해져야 한다. 그리고 찬바람 돌던 교회는 훈훈한 바람이 불어야 하고 성장의 동력이 일어나야 한다. 반대로 부흥회 후유증으로 교회가 더 소란해지고 규율음이 커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강사 책임이다.

물론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라면 언제 누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하든 충격을 받거나 그 과정이 크지 않다. 그러나 부흥회가 남긴 부정적 여파로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런 부흥회는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 신학이 교회를 외면한 독자적 노선을 걸 때처럼 교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부흥회는 득보다 실이 크고 남는 것보다 버릴 것이 더 많다. 철저하게 부흥회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3)담임목회자에게는 도움이

필자의 경우 초빙한 강사에게는 최선의 예우를 갖추었다. 강사를 높이고 자랑하고 세워 주었다. 솔직한 강사가 기본 나쁘면 메시지 전달에 감정이입이 일어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강사는 담임목사를 높이고 감싸는 언동을 해야 한다.

어느 해인가 목회와 부흥회를 잘 인도한다는 강사를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을 반복하는가 하면, 본 교회 목사를 은근히 비꼬고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닌가? 교인은 모르지만 목사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 후 다시는 그를 강사로 청하지도 않았고 추천하지도 않았다. 부흥회는 담임목사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4)균형을 지켜야 한다

부흥회가 이성적 접근만으로 진행되면 영이 메마르게 되고 영적 한대지방을 갖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성령집회라며 그쪽으로 기울다 보면 고무풍선처럼 붓게 된다. 그럴 경우 내실이 없고 남는 게 없다. 방방의 한계에 갇힌 교회는 불 지피는 데 시간이 걸린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강림 사건 이전의 교회는 이성적이었고 합리적 입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도 머리로 이해하고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성령강림 이후 마음이 뜨거워졌고 몸과 입으로 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용기의 사람들이 된 것이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기대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강사는 강사대로 기도 준비가 필요하다. 목회가 균형 목회여야 하듯 부흥회도 균형을 지켜야 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부흥회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성공적 부흥회가 될 것이다.

월화수, 목금토, 일주일을 돌로 나눠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심한 경우는 하루나 이틀씩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자기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목회자 교회 돌봄은 사모가 하거나 부목사가 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설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주일 낮 설교 한 번으로 교인과의 소통이나 교제가 성립되는 것은 어렵다. 목회자가 교회와 목회현장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백도 커진다. 공백과 저성장은 빼먹어치우는 수레의 두 바퀴 같아서 같이 가고, 함께 머문다. 목사의 외유가 잦아지면 교인도 덩달아 외유를 즐기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부흥회와 목회자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목회계획에 따라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부흥회 강사로 나서고 있다. 목회가 정도라야 하는 것처럼 부흥회도 정도와 균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앞글에서 밝힌 것처럼 부흥회가 교회 성장에 끼친 영향은 굵고 크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끈 선배들과 지금도 현장에서 땀을 쏟고 있는 동역자들, 부흥사들의 역할도 지대하다.

조심할 것은 자신의 영성관리와 생활관리다. 미국의 경우도 내로라하는 부흥사들과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진 이유는 자기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인생이나 목회란 한번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성공으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면 안된다. 들어오고 나가는(in and out) 균형과 속도가 맞지 않으면 탈진과 소진 현상이 일어난다.

그동안 총신교회를 다년간 부흥회 강사들, 세미나 강사들, 예배 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 필자의 목회 기간 동안 그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가 30여 년 넘게 이 교회 저 교회 전국 각처에 강사로 부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린다. 동시에 과를 남겼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관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시대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건강한 부흥사들이 뒤를 잇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후진을 양성하고 길을 터 줘야 한다.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복음의 역수출로 각광받는 한국교회. 일어나라, 가라, 빛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iamcspark@hanmail.net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 총회 직영신학대학(원) 신입 및 편입생 모집 Cross Theological Seminary

본교는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으로 신 구약 성경과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며 영성과 말씀과 지성을 겸비한 선교 지향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교를 졸업한 자는 아래의 특점이 있다.

1. 본 신학원의 M.Div 과정을 졸업하면 절차에 따라 목사 안수,
2. 본교는 State 및 Federal 정부인가와 비영리 단체 인가 취득
3. 본교 신학교를 졸업하면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어디서나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음
4. 전교생에게 각종 장학금 수여

모집학과 및 과정		
학위와 과정	입학 자격	
학사	신학사(B,Th)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선교학(B,M)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석사	목회학(M,Div)	대졸
	선교학(M,M)	대졸
	상담학(M,C,C)	대졸
박사	목회학(D.Min)	M.Div 학위 소지자 5년의 목회경력이 있는 자

입학 안내	
제출서류	입학 원서(본교 소정 양식) 담임목사 추천서, 신앙고백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명함판 사진 2매
	전행일시 2018년 9월 4일 7:00 PM - 9:00 PM
	장 소 뉴저지 북부 Campus 135 Fort Lee Rd #105 Leonia NJ 07605 (201) 647 - 6334, (917) 334 - 6333
연락처	E-mail: jhkim5445@gmail.com Main Campus - 147 Rt 130 Bordentown NJ 08505

강의장소 북부 Campus : 135 Fort Lee Rd,#105 Leonia NJ 07605
Main Campus : 147 Rt, 130 Bordentown NJ 08505

중부 campus : 80 Jefferson Blvd Edison NJ 08817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UPCA)

총장: 황의 춘 목사 학장: 이영훈 목사 대학원장: 김주환 목사 이사장: 한상우 장로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목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 융합의 극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란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인공 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바둑 세계의 고수들을 차례대로 이겼던 충격적인 사건이 4차원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알람이었다. 로봇의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는 시대적 산업을 4차원 산업시대 혁명이라고 부른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농사와 가축을 기르며 살았다. 농작물의 풍년, 흉년이 인류의 행과 불행의 척도로 삼았다. 이 1차 산업시대의 영성은 신 중심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동력과 철강 산업의

개발로 2차 산업 시대를 열었다. 이성이 영성을 누르면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가진 자들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계의 세계로 들어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개발함으로써 3차 산업시대를 활짝 열어놓았다. 신속한 정보 공유가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 버렸다. 지금까지의 지식세계를 하루아침에 판도를 바꿔 버렸다. 스마트 폰이 나오면서 세계가 손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제는 본격적인 정보통신 기술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실생활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곧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 드론을 이용하여 택배를 하게 되

었다. 더 나아가서 3D프린터 하나만 설치하면 배달도 필요 없다. 집안에서 원하는 상품들을 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공장들도 사라진다고 한다. 이것이 4차원 산업 혁명의 서막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로봇 메이드 하나만 구입하면 만사가 끝난다. 시간 맞춰서 요리하고 세탁하고 청소까지 말끔하게 끝내준다. 지체롭고 상냥하고 외모까지도 예쁜 로봇이 주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바가지질 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는 잠자리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책 읽어주는데 엄마보다 로봇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엄마는 피곤하고 졸리운 목소리로 읽지만 로봇은 생생하게 입체적

로 잠이 들 때까지 중단하는 법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지난 50년의 목회 현장을 비유해 보니 거기에 1차부터 3차 목회시대가 있었다. 1960년 대 교육전도사 시절의 한국 교회는 완전히 1차 목회 시대였다. 피아노는 본당에만 있었고 교육관에는 대부분이 풍금이 있었고 주일학교 찬송가는 먹물로 가사만 적은 창호지 패도를 사용했다. 서울 문안의 교회들은 주보를 인쇄했지만 변두리 교회들은 원지를 철필로 가리방 위에서 굵어서 등사관에서 잉크로 한 장 한 장 롤러를 밀어서 프린트해서 사용했다. 영상은 필름 한 장 한 장 틀에 끼어 썼던 환등기가 고작이었다. 70년 초에 삼성 현대에서 메모리 타이프라이터가 상품화 되면서 문서 편집이 수월해진 2차 목회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대학생 선교 단체들의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수양회에 서나 사용했던 기타가 서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몇 교회들은 북을 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드럼 세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88년도에 토론토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때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교회 음악도 신디사이저와 기타, 드럼도 사용했지만 영상은 2차 산업 시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수동식 OHP(오버 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했다. 그러나 과학은 무진장한 진보를 이루

며 90년대 중반에 뉴욕 목회에서 본당에 PPT(파워 포인트) 스크린을 설치했다. 거북하고 경건했던 강단의 자주색 벨벳 커튼을 걷어내고 충전연색 영상이 번쩍번쩍할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매우 걱정된 눈으로 젊은 목사를 지켜보곤 했다. 그렇게 시작된 아날로그를 지나 디지털 영상 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폭 넓게 활용해왔다. 찬송을 부를 때, 선교사들의 사역보고에도 영상이 없으면 실감이 나질 않을 정도로 PPT 사용은 대중화 되었다.

설교의 요점들과 인용 성경들도 일일이 한글과 영어로 올려서 교우들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했다. EM이나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배에는 의례히 찬송가도 성경책도 없이 맨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최근에는 한어권 교우들까지도 셀폰의 성경 앱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이 눈에 띄었다. 시대의 흐름이라 불경하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디지털 목회 시대에 들어섰다. 건축헌금에 대한 바자회 때 처음으로 크레딧카드로 헌금을 드리기도 했다.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목회도 4차원 목회 시대가 열릴까? 아니다.

필자는 몇 달 전부터 파워 포인트 활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했다. 겨우 북을 찬송가를 부를 때만 약보를 띄우고 가능하면 각자의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성경본문도 인용구절도 설교 요점도 일체

영상으로 올리지 않고 있다. 이유는 교인들이 점차적으로 성경, 찬송가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교자와 아이 컨택(eye contact)이 되지 않는다. 영상 쳐다보느라...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 예배시간에도 자기 성경책을 만져보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성경을 펼쳐볼까? 어렵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일체히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 자신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갖고 읽고 밑줄도 긋고 흔적을 남기면 애착이 가지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싶을 때 쉽게 찾아보지 않을까?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니 설교 중간 중간에 성경을 찾는 시간으로 설교가 끊기는 불편도 있다. 그러나 편리를 위해 시대의 흐름만 좇다가 본질을 놓치는 것보다는 역행을 해서라도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4차원 목회의 사명이 아닐까? 이래 저래 시대는 극단적인 편리를 따르겠지만 목사가 섬겨야 할 영혼은 1차 시대나 4차 시대에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현대 과학과 편리가 죽은 영혼을 더 죽게 만드는 세대에서 우리 목회는 1차 산업 시대로 돌아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 목회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권영국 목사 (대흥교회)



산다, 죽는다 라는 말은 생명체에 국한된 단어입니다. 동물과 식물만이 "산다, 죽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씨가 땅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이 돋고 가지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제 생명이 다하면 죽는 것은 거의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다릅니다. 몸을 움직여서 배고프면 찾아먹고 차고 더운 것을 가려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를 해치려 하면 피하거나 반항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들의 이 모든 것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동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똑같은 생리조직과 기능을 가진 동물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리조직과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같은 의학 기술을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생활양식은 천차만별로 다른 이유는 "생각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곳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다녔던 살아있는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의의 같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리조직이 다른 게 아니라, 살아가는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질을 변화시켜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싸우고, 기계적으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육신의 쾌락과 욕구에 충실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피곤하면 자고.... 데카르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곳이 종종 나옵니다. 전도서 7장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하루아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겪는 결과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한 위치에 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곤고할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길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40:31)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계속 강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짧은 구절에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신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21:18).

"남이 네게 띠 띠우고"라는 말은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순

의 삶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3에서 이미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으리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축복은 "앎"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결론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라는 것입니다.

2)선다-"진리에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굳게 한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확증하다, 확인해 두다, 의견에 대해 변동의 의지가

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8과 14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2. 생각하라(13절, refresh your memory)

13절에서 또다시 "생각하라"는

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문서들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투옥과 핍박과 박해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의 죽음의 태도는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남겨진 육신의 장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썼던 것은 "새로운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어 생각나게 하는 일"(refresh your memory)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긴 유언은 "평생에 가장 전하고 싶었던 핵심"을 남기기에, 누구라도 유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베드로가 남긴 유언은 "너희들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 복음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유혹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세상에서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 이런 유혹에서 이상한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refresh your memory"입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 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탐복하는 과정에서 불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두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씌어감으로 두 다리를 다 잘린 한 북한인의 자매가 미국 국외의 초청으로 "미국의 실상"을 알리러 오면서, LA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간증을 우리교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과 흐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그 자매의 눈물과 서러운 흐느낌만으로도 전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흥수 시대에 말씀에 대한 비평자가 되지 마시라. 늘 말씀을 통해 refresh, 마치 메모리 디스크를 새롭게 정리하듯,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새롭게 함을 이룹시다.

3. 생각하라(15절, remember)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revdkwon@gmail.com (11면으로 계속)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1장 12-15절)

없이 굳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1-2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로 복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있는 것...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야할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3)생각한다(remind)-신앙의 삶은 늘 잊어버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일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별된 삶을 지킵니다. 반복적인 예배를 왜 매주 구별되어 해야 합니까? 이런 예배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

을 보면 세 개의 단어를 두 다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12절에서는 remind,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refresh your memory)고 하였고, 15절에서는 "생각나게 하라"(remember)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목적과 주제도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신앙한다'라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알고, 서고, 생각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단어를 신앙의 동사로 말씀합니다.

1)안다-복음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죄 해결의 유일한 방법을 알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고...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와 죄인임을 모르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고 똑같은 죄인의 한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

없어 굳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1-2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선다-"진리에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굳게 한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확증하다, 확인해 두다, 의견에 대해 변동의 의지가

없어 굳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1-2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선다-"진리에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굳게 한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확증하다, 확인해 두다, 의견에 대해 변동의 의지가

없어 굳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1-2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선다-"진리에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굳게 한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확증하다, 확인해 두다, 의견에 대해 변동의 의지가

없어 굳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1-2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선다-"진리에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굳게 한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확증하다, 확인해 두다, 의견에 대해 변동의 의지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악법 AB-2943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25-11로 통과 기독교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지난 8년 간의 친동성애 홍보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성적정체성 혼돈은 미 전역을 포함해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자유진보주의 성향의 주에서는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한 소식은 동성애 유행병에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 혹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 혼돈이 끝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간증들을 무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치료나 상담 받을 권리를 법적 정당성을 내세워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성적 취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상담치료를 금지하는 AB-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법안이 바로 그것이며,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의 Evan Low에 의해 제출되어 올해 4월에 50-10 표결로 의회(Assembly)에서 통과하고 8월 16일 주 상원에서는 25-11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년 민주당 소속 Ted Lieu가 제출한 AB 1722에 의해 이미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원해도 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AB 2943은 미 전역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반대로 인해 발의안 항목에 약간의 수정사항이 생겨서 8월 20일 월요일에 다시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토론이 있을 것이며, 8월 31일 금요일까지 주의회에서 이 발의안을 법으로 통과시킬지 말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이 사악한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모든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다 지지하고 서명해온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에게 올라가고 그는 현재까지 이 발의안을 100% 지지하므로 서명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에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ACTION TO TAKE: 따라서, 이번 주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래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에게 편지, 이메일, 전화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악한 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반대사를 표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 가시면 이미 법안을 반대하는 편지가 적혀 있으니 이름, 이메일, 주소만 적고 Submit 하시면 됩니다. <https://californiafamily.volunteers.com/ContactOfficials/stop-ab-2943>

아래는 이번 상원에서 누가 이 사악한 법안을 찬성/반대 또는 투

행정부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해 온 민주당 소속의 친동성애 의원들로서, 이들은 2008년 Prop.8(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에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시민들이 통과시킨 법을 무효화 시켜 버리고, 2010년 SB 48(미국 역사

가 주는 애국되고 편향된 정보들에 속아서 반기독교적인 정치인들에게 투표함으로써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 의회를 거의 다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가 왜 이렇게도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안들만 골라서 통과시키려는가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맛을 내야 할 소금의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AB 2943이 합법화되면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수정 내용이 성경을 금지(Ban)한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하지만 이들의 전력을 볼 때 얼마큼 이들의 법적 내용이 진심인지, 여전히 발의안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적혀있기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동성애와 성적정체성 문제에 관한 종교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사기죄(fraudulent activity)" 라는 매우 펜시(fancy)하고 그럴듯한 명목 하에 이 발의안을 적용하고 있기에 젊은이들은 더 더욱 문제의식을 못느낍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자유진보 정치인들은 겉포장과 속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발의안이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어떤 미래를 우리자녀들에게 초래할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적극 반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AB-294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읽기: <http://tvnext.org/2018/04/ca-ab-2943-bible-ban/>

모두 힘을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sarahspring2009@gmail.com



표를 안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속한 정당(political party)을 11월 투표 때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이름들은 Last Name만 올립니다.

찬성(Yes): Allen, Atkins, Beall, Bradford, De León, Delgado, Dodd, Galgiani, Glazer, Hernandez, Hertzberg, Hill, Hueso, Jackson, Lara, Leyva, McGuire, Mitchell, Monning, Pan, Portantino, Skinner, Stern, Wieckowski, Wiener(찬성의 100%가 민주당 및 "민주당 친동성애 의회클럽-LGBTQ Caucus"임).

반대(No): Anderson, Bates, Chang, Gaines, Moorlach, Morrell, Nguyen, Nielsen, Stone, Vidak, Wilk(반대의 100%는 공화당,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임).

투표 기권(no voting): Berryhill(R), Cannella(R), Fuller(R), Roth(D). 공화당 3명과 민주당 1명이 기권.

참고로, AB 2943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지난 8년간 오바마

상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교과서를 친동성애 내용으로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들까지 다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2년 AB 1722(18세 미만 학생들은 동성애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금지) 등, 지금까지 수많은 반기독교적인이고 비윤리적인 법안들을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정치인들입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주에 미국의 기독교역사와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가가 설립된 배경을 모르는 이민자들과 거주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국가적 가치관의 소중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에 적응하며 살기에 바쁜 가족들과 투표(vote) 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사악한 법안들이 통과돼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투표율이 심각하게 낮거나(통계적으로 20%-25%로 미만) 또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주류미디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의 길을 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지 대학원 입학을 놓고 고심 중에 일단 바울이 사역했던 T 지역에 단기선교를 10개월간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바울이 유대인으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으며 그의 선교는 주로 어느 곳에서 했는지요? 스페인도 갔는지요?
-사우스베이에서 KW

A: 좋은 질문입니다. 형제가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고심 중에 T 지역에 단기선교를 나가려고 결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번 단기선교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바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방 땅 다소(지금의 터키)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약의 전권한 최강종 박사는 그의 아버지는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그가 만든 장막 즉 텐트는 로마군대에 납품되어 로마에 지대한 공을 세워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고 강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바울이

선교정신과 순교정신으로 사역한 바울... 소아시아, 유럽, 터키 등 3차례 선교여행

선교하다 잡혀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재판 없이 매질 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에게서 텐트 만드는 일을 배운 그것으로 고린도에서는 텐트메이커(Tent-Maker)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하던 중 가말리엘 문헌에서 율법의 엄한 도를 배워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바에서 3년, 다소에서 무명정도자로 약 7년, 그리고 안디옥의 부목사로 1년 사역 후에 이방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그의 선교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오늘날 그리스 바로 위의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2-3년간 사역을 하였고 제2차 선교사역은 주로 지금의 그리스인 "마게도나와 아가야" 지역 즉 유럽에서 선교사역을 3-4년 했습니다. 그 지명은 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입니다. 제3차 선교사역은 소아시아 수도였던 터키의 에베소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3년간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방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하였고 성전에서 잡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당했다가 로마시민권을 가졌으므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함으로써 로마로 가서 2년 가택구금을 당했다가 풀려나서 그가 소원했던 그 당시의 땅끝인 스페나(스페인)로 가서 선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차 로마감옥에서 풀려나 로마교회를 방문하여 로마교회의 협력으로 서바나 선교를 약 2년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잡혀 감옥에 투옥되는 중에 로마 네로황제 때 갈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바울의 정신은 2가지입니다. 그는 선교 정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죽으신 후 10년 정도 지나 약 30살에 회심하여 11년을 이방선교를 위해 준비하였고 11년 정도를 이방 선교사역을 하였고 6-8년(가이사라, 로마 1, 2차)을 감옥에서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기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순교입니다. 형제님의 단기선교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7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8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8년 12월 17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847-359-5200 F.847-359-8409

www.NLChicago.org
newlifechicago@yahoo.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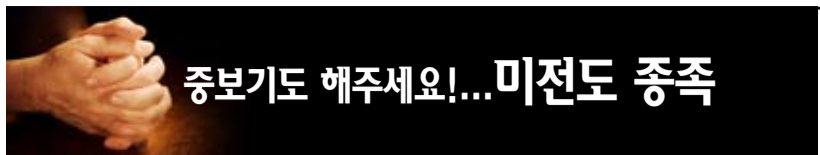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유럽의 포마크(POMAKS)



포마크족은 유럽 발칸 지역에 살고 있는 슬라브족이다. 보통 불가리아 방언을 쓰고 불가리아인 생김새를 하고 불가리아인과 비슷한 문화적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인으로 보통 여겨지지만, 이 종족은 그리스정교회보다 이슬람교에 헌신하고 비불가리아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포마크는 아마도 1370년대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듯하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

인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개종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다양한 무슬림 관습을 택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여자가 베일을 쓰는 것 등이다. 비록 대부분의 포마크족이 불가리아에 살고 있지만 3만명 정도가 그리스 지방인 마케도니아와 트라체 변경에 살고 있고, 루마니아에도 살고 있다. 로도페어(Rhodope, 불가리아어)를 쓰고 개종에는 제2외국어로 그리스어와 마케도니아어를 사용했다. 수년 동안 이들은 다른 사람과 격리되었지만, 최근에는 현대화로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됐다.

삶의 모습

포마크의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호밀, 보리, 옥수수, 감자, 담배, 아마섬유, 대마(밭줄이나 새끼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섬유식물)이다. 암소, 염소, 양 같은 동물을 사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포마크의 여자들은 뛰어난 방직기술로 명성이 나왔다. 많은 포마크인들은 이주 노동자로서 수입을 벌고 있다. 포마크인들의 주식은 빵과 감자와 콩이며, 요구르트를 즐기고 다양한 치즈와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는다. 포마크의 농부들은 목초지와 평원으로 둘러싸인 시골에 살고 있다. 대부분은 2층 건물에 살고 있는데, 윗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아래층은 축사로 쓴다. 전통적으로 집은 나무, 돌, 진흙으로 만들고 슬레이트로 경사진 지붕을 얹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라믹 타일 지붕을 얹고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포마크의 결혼은 신랑, 신부될 남녀의 가족들 사이에

중매로 한다. 결혼식은 1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 하며, 결혼 전에 신부는 의복, 가재도구를 포함한 지참금을 준비한다. 비록 이슬람 율법이 남자에게 4명 이상의 아내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리스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는 포마크족 내에서 흔하지 않다. 그리스계 포마크족은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종종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상절차 없이 땅을 빼앗겼고, 행동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살 수 없고, 공무원이 되거나 사업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는 무슬림 여권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일 포마크인이 여권 없이 해외를 여행한다면 그리스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신앙 포마크족은 거의 전부가 무슬림

이며, 이들의 종교는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마크족 사이에는 전통적인 이슬람 의식이 없다. 그들 언어에는 이슬람 신앙과 전통에 반드시 있어야 할 종교적 어휘가 많이 없다. 포마크족은 이슬람 성인들을 실제로 알지 못하며, 반면 기독교 성인 축제는 계속 지켜지고 있다. 결혼식과 다른 의식은 이슬람과 기독교 전통을 혼합한 형태로 하고 있다. 이슬람력의 9번째 달인 라마단(람잔, Ramadan) 동안의 금식과 다른 무슬림 의식은 옛날에는 지켜졌으나, 오늘날 이러한 관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다른 무슬림과는 달라서 포마크족은 방해받지 않고 혼합된 종교를 허용해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스의 포마크족은 복음에는 매우 적대적이다. 수세기 동안의 그리스인의 탄압이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발감을 갖게 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스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주의 전도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은 아직 포마크 방언인 로도페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마케도니아어로는 번역됐다. 불행한 것은 현지의 포마크족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대부분의 포마크 성도는 700명 이상으로서 불가리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포마크 전체 인구에 1%에 불과하다. 불가리아나 그리스의 포마크 기독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포마크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기독교 선교사들, 기독교 라디오와 TV 방송, 문서자료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전환 케이크요?...” 제빵업자 또 법정에

‘동성 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6년 만에 승소했던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가 이번엔 ‘성전환 축하 케이크’ 사건으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필립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 등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필립스가 지난 14일 콜로라도 주지사와 주시민권위원회 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 온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주시민권위원회측 변호사와 콜로라도 주지사 등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홀로 연방대법원에서 싸워 승리한 필립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콜로라도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소는 필립스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계속되는 박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주시민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필립스에게 성전환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다. 이들은 케이크의 겉은 파란색으로, 안은 핑크색으로 주문했다. 또 케이크에 사탕이나 마리화나, 자위 도구 등의 장식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필립스는 동성 웨딩케이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전환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과 여성성 외에 다른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 것이다.

ADF는 “콜로라도주가 계속해서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려한다”면서 “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박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4일 잭 필립스 사건 상고 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성혼 케이크업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는 2012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성도 10명 중 4명 “헌금 많이 하면...”

미국 성도 10명 중 4명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응답했다. 성도 4명 중 1명은 “물질적 축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18세 이상 기독교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미국 성도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비슷한 행위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둘 다 ‘캐시백 포인트’처럼 현금을 환급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매킨돌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미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면 재정적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질적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과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며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 같은 ‘번영신학(prosperity gospel)’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69%)은 ‘하나님은 내 경제적으로 성공하길 원한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교단별로는 하나님의성회(80%) 침례교(74%) 등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감리교(65%) 루터교(49%) 성도에 비해 더 많이 동의했다.

매킨돌 대표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일수록 자신의 행동과 물질적 축복에 대한 연관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며 “그동안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번영신학’을 비판해 왔지만 평신도들의 신앙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이다.

‘초기 기독교 5대 가짜뉴스’ 반박

미국 리폼드신학교 마이클 크루거 총장은 20일 ‘초기 기독교에 대한 5가지 가짜뉴스’를 ‘복음 연합(the Gospel Coalition)’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기독교인이 철저히 분별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 가짜뉴스는 반복돼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먼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만큼 초기 기독교에 관한 선정적 음모론도 없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처럼 잇을 만하면 등장한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검증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둘째, 예수의 신성(神性)이 4세기 니케아공의회에서야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예수는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니케아공의회에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자료는 방대하다. AD 50년을 전후해 기록된 고린도전서(8장 6절)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나니.”

셋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대제 시대까지 기독교인에게 성경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4세기까지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며 구전(口傳)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는 음모론의 또 다른 형태이며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주장일 뿐이라고 크루거 총장은 일축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구약성경을 그들의 성경으로 갖고 있었다. 또 신앙성경으로 기록된 문서들을 읽고 있었으며 이들은 2세기 중반까지 정경으로 인정받았다.

넷째, 도마복음 같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사복음서만큼 일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1945년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나그함마디 마을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는 이른바 ‘잃어버린 복음서’로 간주되면서 사복음서보다 더 많이 읽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들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복음서가 초기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복음서였다. 마지막으로 신앙성경의 모습이 급진적으로 변질됐고 편집됐다는 주장이다. ‘성경 외곽의 역사’를 펴낸 바트 에르만에 의해 유명해진 이 주장은 무한 반복되는 대표적 가짜뉴스 중 하나다. 하지만 성경 내용이 변질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크루거 총장은 강조했다.

소녀의 풍선 편지, 기적 같은 응답

생활고에 시달리던 10대 소녀가 기도와 함께 작은 소원을 적은 편지를 풍선에 달아 하늘로 띄웠다. 동심동심 떠다니던 풍선은 기적처럼 목회자의 손에 떨어졌고 소녀는 소원을 이루게 됐다. 네티즌들은 동화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며 즐거워하고 있다.



주인공은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 사는 열여덟 살 마이키리아 커리. 오른팔 장애를 가진 홀어머니 카티나 미첼의 곁을 떠나 올버니주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그녀에게 고민거리가 있었다. 수업료와 집값은 대출로 간신히 마련했지만 이불이나 냉장고 같은 생활용품은 살 돈이 없었다.

커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제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그녀는 고민과 함께 기도를 편지로 썼다.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었다. 그리고 지난 4일 3개의 헬륨 풍선에 편지를 달아 하늘로 날렸다.

“제가 편지를 써 하늘로 띄운 건 단지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길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전 그 편지가 하늘에서 떨어질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편지를 받았다면 제가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곧장 쓰레기통에 편지를 버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편지는 주말과 휴일 동안 바람을 타고 동북쪽으로 15마일을 날아갔다.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그레이였다. 침례교회 목회자인 제롬 존스는 월요일인 지난 6일 아침 일하러 가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동심 날아오더라고요. 걸어가서 풍선을 잡았죠. 편지가 달려 있더라고요. 밤낮을 날아온 풍선이 제 손에 떨어지다니!”

존스 목사는 커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사주겠노라 약속했다. 커리는 “존스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했다”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존스 목사와 성도는 이날날 이불과 냉장고를 사 커리에게 달려갔다. 커리는 앞으로도 계속 존스 목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학교 생활 등을 알릴 생각이다. 커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운다고 한다. 대학생활이 익숙해지면 학교 안에서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다.

커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 너무 신난다”고 말했다. 기적 같은 커리의 이야기를 본 네티즌들은 CNN 페이스북 등에서 “가슴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기쁜 일만 가득하길”이라는 응원글을 남기고 있다.

신앙 고백으로 더 빛난 스타들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프랫이 시상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밝혔다. 유명인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길 주저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거침이 없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프랫은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서 열린 2018년 초이스 시상식에서 ‘초이스 여름 영화 남자배우상’을 받았다. 브이(V)자를 그리며 여유 있게 시상대로 나선 프랫은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왔다”며 “사랑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라고

외쳤다. 그가 시상대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SF 남자배우상에 선정되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실했다. 지난 6월 MTV 어워드에선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설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지난 4월 프랫을 비롯해 마크 윌버그, 덴젤 워싱턴, 스티븐 볼드윈, 톰 헵스 등 5명을 크리스천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리우드 남자배우로 선정했다.

액션영화에 주로 출연해온 윌버그는 2016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담은 영상을 찍었다. 그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극복했다”면서 “믿음은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종경받는 배우로 손꼽히는 워싱턴은 성직자 아버지를 뒀지만 한때 신앙심을 잃었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 신앙적으로 잘못이 많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았다.

알렉 볼드윈의 동생으로 유명한 스티븐 볼드윈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선택해 왔다. 그는 신앙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에 맞는 역할을 찾는 게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망함에 걸린 아내와 약물 남용에 빠진 아들 때문에 고독스러웠던 헵스는 하나님을 의지해 힘든 시간을 극복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가스펠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 하늘나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로 손꼽히던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이 16일 76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 ‘소울의 여왕(Queen of Soul)’이라는 찬사를 얻었던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전 세계인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미국 언론들은 프랭클린이 이날 오전 9시50분 디트로이트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녀는 췌장 신경내분비암으로 투병해왔다.

1942년 3월 25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은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가수였던 어머니는 프랭클린이 10살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 마할리아 잭슨 등 기독교 복음성가 가수들을 접하면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으며 57년 노래 ‘가스펠 소울 오브 아레사 프랭클린’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그녀의 나이 고작 열네살이었다. 교회에서 녹음한 노래였다고 한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은 물론 작곡 및 피아노 실력까지 갖췄지만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녀는 애틀랜틱 레코드사와 계약한 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여성 가수로 발돋움했다.

8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94년에는 존 F. 케네디 센터 주관 공연 예술 평생 공로상 최연소 수상자가 됐고 2005년에는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상했다. 그래미상은 무려 18차례 수상했고 빌보드 R&B 차트 1위곡 최다 보유(20곡) 기록을 갖고 있다. 누적 음반 판매량은 전 세계 7500만장에 이른다.

음악작가 ‘롤링스톤’은 2012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100’에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 영국 음악작가 ‘모조’는 그녀를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1위로 꼽았다.

68년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흑인인권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72년에는 자신에게 음악적 영감을 안겨주었던 마할리아 잭슨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러 감동을 안겼다.

2015년 12월에는 케네디 센터에서 노래를 불러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기도 했다.

흑인 음악의 전설적인 존재였지만 음주와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문제였다. 한때 120kg이었던 체중이 최근에는 40kg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프랭클린이 숨지자 정계·교계·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7. 한석원(1894-1987)

1894년 2월 11일에 평북 선천에서 출생한 한석원은 윌리엄 A. 노블 선교사가 세운 초등학교인 진남포 삼승학교와 중학교인 서울 상동교회 청년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11년 선교연합공의회와 주일학교위원회의 한인 대표위원 5인에 속했던 그가 일본 신조 관서학원에서 종교교육을 전공하고 귀국한 때가 1917년이다.

그해 서울 YMCA 소년부 간사가 된 그가 동화집 '눈꽃'을 펴낸 2년 후인 1925년에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협동 총무가 되더니 이듬해에는 하기 아동성경학교부 총무가 되어 전국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보급하였고 동화 순례여행을 다녀왔다.

장로 안수를 받아 감리교 목사가 되던 1927년의 11월 미국 유학차 일본 신조에서 출발하여 킨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었던 소문과는 달리 한석원이 1928년 7월 나성에서 모이는 세계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하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대표단 21명(아동 포함)으로 도미했다.

그는 상항에서 마련한 환영회에서 김관식과 함께 설교했고, 이듬해 7월에 다뉴바의 고려국어학원 방학식에서 내빈으로 권면사를 담당했다.

중가주 리들리 감리교회

감독 헤이 박사가 1928년 9월 상항에서 소집한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교회 구역대회에서 한석원은 리들리교회 목사로 파송된다. 본 교회는 스타톤의 김 탁 목사가 매월 내왕하면서 개척한 교회였다.

10월 21일 본 교회에서 계삭회가 모였을 때 데비스 목사가 6명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식도 집례했다. 1928년의 제직은 권종흡이 권사겸 주일학교 교장이었고, 마주흥이 유사 겸 국어학교 교장이었다. 1929년의 제직은 권사에 마주흥과 오창곤이, 탁사에 유병규, 마주흥, 오창곤, 이치완, 권영복 여사, 김덕세 여사, 마수산나 여사가 선임되었다.

제정 보고서에서 지난 7주간에 수입이 231.85원이고, 지출이 99.85원이니 잔고는 132원이었다(원은 달러를 말한다). 이날 중요한 의제는 예배당 건축이었다. 선교회에서 5백 원을 보조하고 본 교회에서 6백 원을 헌금하여 5백 원 선지급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나 협소하여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하기로 했다. 원가 2천5백 원을 합하면 3천여 원이었다. 매사 25원씩 지급하기로 선교부에 교섭하기로 했다. 본 예배당은 전성룡 주택, 김형제 상

회 가옥에 이어 세 번째 예배당이다.

1929년 1월 26일과 27일에 데비스 목사가 리들리교회에서 한인남감리교회 구역대회를 소집했다. 한석원은 '주일학교 방침들에 대하여'란 제목의 강연을 했고, 그의 인도로 아동회가 모여 여러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서기와 국어학교와 주일학교 및 엠티 청년회를 지도하는 교육부장으로 선임됐다. 예배당과 국어학교와 기타 비용을 위하여 매사 3, 40원을 헌금했고 지난 5개월 동안 총 600여 원이 모였음을 보고했다. 60여 명의 동포 중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교회와 동포의 공동행복을 위하여 마음으로 아름답게 진행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다.

신한민보는 '소크라테스의 집이 심히 험악하여 불편하였으나 잠 이치를 찾는 사람이 찾기를 기뻐한다 함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집이 이 집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1930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사를 초청하여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맡겨 신년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이 '믿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삼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

소서'를 그리고 그 날 밤에는 권종흡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그해 3월 16일에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회가 모였는데 데비스 목사가 유아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했다. 다음 달 상항 예배당에서 가주동양인선교부 한인지방회가 모였을 때 한석원이 서기로 피선되었으니 그의 지도력이 인정받았다.

순회전도와 딜라노교회 개척

한석원은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 목사로서 리들리 인근 한인 거주지를 찾아 순회전도여행을 하였다. 1929년 10월 25일 밤차로 베커스필드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27일 주일에 테프트에서 설교하고, 저녁에는 딜라노에서 설교한 후, 밤차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해 11월 29일에도 테프트와 딜라노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다.

1930년 1월 25일 밤차로 떠나 테프트에서 '착한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딜라노에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27일에 돌아왔다. 그해 6월 8일에는 권종흡과 함께 두 도시를 다녀 다음날 돌아왔다.

이듬해 4월 신한민보에 게재한 아래와 같은 '부활 찬송 부르자'라는 노래 글에서 힘든 유학에서 경험한 한석원의 부활 신앙과 선교 정신을 본다.

"깃부고 깃부다. 우리 구주 예수/오날 아 참 부활했네/깃부고 깃부게 찬양합세다/주의 영광 땅곳까지 전하세/주의 영광 땅곳까지 전하세/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이기신 (사망 권세를) 우리 주/(이기신 구주) 기쁨으로 찬미를/기쁨으로 찬미를 부르세 (사망 권세를)/사셨네 (이기신 구주)/기쁘게 (부활 종이 울린다)/부활 중 (기쁘게) 울린다 (종이 울린다)/찬미 소리 하늘에 사뭇 차니/할넬누야, 할넬누야, 할넬누야/디구상에서 주의 일출 불너 찬미 하기를/할넬누야, 할넬누야, 할넬누야/디구상에서 주의 이홍 불너 찬미하기를/할넬누야, 할넬누야, 할넬누야/주께 노래로 찬양합세다 (찬양합세다)/찬양합세다 (찬양합세다)/만왕의 왕께 호사나로 찬(찬양합세다)/양(찬양합세다) 하(찬양합세다) 세/평화 왕께 호사나 불너"

그해 6월 7일에 서부지방학생총회가 마련한 예배의 설교를 통해 그의 복음 전도는 계속되었다.

한석원은 1931년 '세계명작가곡집-7

"오! 주 하나님ися이! 이날에 우리 이 천오백만 동포에게 새 정신을 주시고 사업에 큰 힘을 내리소서. 우리의 하는 일로 주의 이름을 세상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길을 도모하는 지도자들에게 지식을 내리사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패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사업만은 주의 옳은 손에 있게 하소서. 이미 이 사업에 희생된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영을 이날에 위로하소서. 아멘."

이 글에서 "인구세를 내는 그 사람이 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애국금을 내어서 정부의 활동을 더 크게 지지자!"며 해외 동포의 의무를 강조했다.

리들리 해동국어학교는 한석원의 열정의 결과였다. 1928년 9월 한석원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0명으로 '아동 음악극대'를 조직했는데 미주 한인 2세로는 첫 가극대다. 1929년 부활주일 저녁 7시에 상항에 배당에 섰다. 가극 '우리나라 만세'가 펼쳐졌는데 독창 '대한의 국민들아', 합창 '큰길', 피아노 독주, 독창 '사랑의 분향' 등이 있었다.

신한민보는 미국 기독교 대학의 '글리합창단'에 비교하여 '어린 동포들의 입술에서 달달 굴러 나오는 가곡이야 물론 백두산이 움직일 것 같고 동해에서 용이 솟는 것 같다'고 했다. 3일 전인 3월 28일에는 어린이가 리들리 예배당에서 '초로인생'이라는 교훈극을 연출했다. 한성 김현순 작곡으로 한석원이 교정하여 달, 꽃, 눈, 나무, 늪은이 그리고 천사로 구성하였고, 노래 글을 나누어 주고 점진 부분은 참석한 자도 불렀다.

나성에서 공부하던 한석원은 1931년 여름 방학 동안 딜라노의 태극한글학교 교사로 초빙된다. 그해 8월에 그가 아래의 '우리나라'라는 두 절의 노래글을 써서 신한민보에 게재했는데 어린이에게 가르친 겨레 사랑을 엿볼 수 있다. (1)아름답다 열세 집/우리 대한반도/무궁화원 삼천리/우리 나라라 (후렴)남산 송백 울음장장/한강수는 양양 호호/무럭 자라나는/고려민족아 (2) 장하도다 이천만/우리 고려민족/예수의 사랑으로/단결합시다.

귀국

미국 텍사스주 조지타운 서남대학에서 문학사를 받은 1933년에 한석원은 달라스 남감리교회 대학교의 퍼킨스 신학교에 입학했다. 졸업할 때까지 본 신학교 교수이자 21년간 내한 선교사였던 알프레드 W. 왓슨 목사의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웨슬레의 감동제도'를 논문으로 제출하고 1935년 교회사 전공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중가주 딜라노의 태극국어학교 교사로 잠깐 재임한 뒤 그의 미국 이름 '페닌술라'(삼천리반도)로 1936년 7월에 귀국한다.

장로교 목사가 된 그는 '아이생활', '장로회보', '기독교신문'의 주필을 역임하였다. 민경배에 따르면 그는 '일제 말 한국장로교를 그 가혹한 현장에서 지켜낸 투사'다. 1963년에 은퇴한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가 1987년 12월이었으니 향년 93세였다.

damien,sohn@gmail.com

1928년 7월 도미, 9월 중가주 리들리교회 목사로 파송 3년간 시무 리들리 해동국어학교 세우고 한인 2세 첫 '아동음악극대' 창단 애국운동, 1935년 퍼킨스신학교 문학석사 취득 1936년 7월 귀국



해동국어학교, 1929년

그달 13일에 감회사 데비스 목사 주례로 딜라노교회를 설립했고, 한석원이 순회목사로 섬겼다.

라성성경학원

1930년 가을 한석원은 리들리교회를 사임하고 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인 '라성성경학원'의 종교 특별생이 되어 1년간 공부한다. 당시를 그는 시집간 만팔을 비유하면서 "1년 동안 라성에서 공부할 때에 어렵고 쓰리고 섭섭한 일은 생전에도 처음 당해보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공화'를 출판하면서 그를 '큰 샘'으로 불렀다. 동서양에 유명한 100여 곡을 170쪽에 엮어 3월 50전에 팔았는데, '하루 밤을 굶을지언정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사교, 연회, 회락에 다 필

요합니다' 라고 광고했다.

애국 운동

한석원의 애국 운동은 삼일독립만세 기념식과 국어학교에서 드러난다. 1929년의 삼일절 기념식이 리들리 예배당에서 있었다. 그는 독창 순서에서 '망향'을 불렀고, '앞으로 우리의 직무'라는 제하의 연설도 하였다. 3월 전인 2월 28일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3월 1일'의 마지막 부분인 아래의 기도문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한 애국 운동의 진솔한 면을 들을 수 있다.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리더십 코멘터리 (7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생애 최고의 발견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가?

소련의 스탈린 통치시절, 보리스 콘펜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정적인 전도로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 의사는 예수를 영접한 후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믿음의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과 둘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다시 의사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불법 수술을 해주었다. 그는 수용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전했다. 이튿날 아침, 의사는 처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이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약속을 보여주었다. 그때 이 의사로 인해 살아난 젊은이가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다. 지금도 보면 아쉬운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리더여,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가?

가장 고귀한 사람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공물을 빼앗겨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 한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은 "부인을 찾는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다. 그 말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리더여, 당신이 믿는 예수는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인가? 아니면 당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인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

요술쟁이들이 행복의 비밀을 인간으로부터 없애기로 결정하고 어디에 행복의 비밀을 숨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지혜 있는 한 요술쟁이가 "땅속 깊은 곳에 행복의 비밀을 묻어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땅을 깊숙이 파 결국은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요술쟁이는 행복의 비밀을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기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표 요술쟁이는 인간들은 물 속 깊은 곳까지라도 잠수하는 법을 배워 결국은 행복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그때 또 요술쟁이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숨기자고 말한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이번에도 안 되겠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기어코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라도 올라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요술쟁이들은 한숨을 쉬고 또 쉬면서 인간들이 발견할 수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대표 요술쟁이는 전혀 뜻밖의 장소를 제안한다. "행복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인간 마음속 깊이 숨기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진리를 심는 자

길은 가까운데 있다. 물론 행복도 가까운 데 있지만, 사람들은 그 행복을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먼 곳에서 찾으려 애를 쓴다.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모습일까? 돈 많은 부자, 권세를 가진 사람,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남자, 많은 지식을 가진 부부, 외로운 고아, 아무것도 없는 홀리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

신의 진짜 감정과 만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감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Helper's high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Helper's high 라고 명명했다. 마더 테레사는 봉사와 사랑의 대명사 같은 존재이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한 바로는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침에 들어있는 면역항체가 뚜렷이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마르면서 이 면역항체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남을 사랑하고 돕는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선행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인생의 정도를 갈 때에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내 가까이에 있는 행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꾸는 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이상학적 행복주시기를 원해서 십자가 밑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 내려놓고 무릎 꿇으라

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행복을 심고, 행복의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 마음에 진리를 심는 자는 그 나무로부터 날마다 기쁜 노래, 생명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행복은 늘 우리들 곁에 있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링크는 1908년 '파랑새'라는 동화극을 발표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하며 파랑새를 찾았지만, 파랑새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형제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매고 찾아다니던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행복은 늘 우리들 곁에 있다.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다. 마음의 불행을 견어내면 행복한 느낌을 찾게 된다. 자

형이상학적인 행복

인간이 이를 수 없던 그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한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보다는 좀 더 형이상학적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찬양하는 중에 나의 것들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중에 오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였다는 뿌듯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감사가 나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나의 생활이 되며, 예배가 나의 주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리더가 되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여로보암의 자기 사랑 증독에서 구해주소서

사랑의 주님.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씀 듣고 죽고 산다고 고백하는 저입니다만... 때때로 부딪쳐 오는 많은 인간들과의 만남 가운데 어찌 그리 까다롭게 자신도 철저히 지키지 못할 법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휘두르기를 서슴지 않는 저의 모습이운데 여로보암의 죄의 흔적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나를 인간 이하로 밀어 내며 무시하는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응징하고 바로 잡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내고픈 분노가 내 안에 깊이 쓴 뿌리로 남아 있어,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는 느낌만 받아도 올라오는 개인의 자기의 분노가 내 안에 복병으로 숨어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물론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빼내는 여로보암의 죄는 의도적으론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의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기본적인 권위가 무시당하면 위협감이 자동적으로 발동해 자신의 손실된 자리를 찾고야 마려는 분노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대치되고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단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호라 어찌할꼬? 절 사람으로는 스스로 정소해 내려는 분노가 미움으로 도배를 하고 성령의 속사람은 은혜로 사해 내려서 이 둘 사이의 영적 전쟁에서 끈고합니다.

성령님-

스스로 감당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어 주님께 원수 값을 드리고 그저 계게 주어진 사랑을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휼의 이해와 용납의 마음만이 넘치도록 나를 의탁합니다.

상황 대로 상한 자존심의 분노에서 응징하고픈 제 중심의 생각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리해주시고 청소해주시도록 주님께 몽땅 맡기고 오직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일에만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를 부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를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대로 시원히 다스리길 마음을 비웁니다. 여로보암의 자기 사랑 증독에서 구해주소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과 더불어 나도 살며 나로 인하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나는 큰 여호와와 성전이 되길, 다시금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저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 따르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오롯이 서기를 사모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아멘 아멘.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2643-6754~5 군포시 김장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3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례: 오전 11:00, 7: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5: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6-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50-9999,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호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732-2341~3, 사택: (82)732-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72 2층(감리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www.eschi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시 용인읍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청림시 성산구 영평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5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참된 아버지상(像)

현대는 면허의 시대입니다. 의사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아버지가 됩니다. 그저 아버지 노릇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연하게 아버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무면허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저절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무면허 아버지가 문제가 정과 문제자녀를 만듭니다. 아버지에게도 '좋은 아버지 면허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혹자가 '무면허 아버지의 7가지 유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과속질주형(자녀에 대해 여가대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원하는 아버지) (2)음주운전형(자신의 신분을 잊고, 환상에 사로잡혀, 감정적 기복이 심하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아버지) (3)뺑소니운전형(자녀로부터 언제나 도피하고, 책임 회피에 익숙하며, 항상 핑계거리를 찾고, 자녀를 내팽개쳐두는 아버지) (4)신호위반형(규칙을 무시하

고, 도덕과 윤리가 없으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5)끼어들기형(항상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며, 자녀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에 대한 험담이 많은 아버지) (6)무단주월형(자녀의 필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선수를 베풀며,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아버지) (7)중앙선 침범형(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며, 사생활까지 방해하는 아버지). 이 같은 '무면허 아버지' 문제가 양산된 것은 그동안 참된 아버지상, 본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

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아버지의 영향을 못 받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참된 아버지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하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오늘까지 중동의 불씨를 날게 했고, 순종의 조상 이삭도 야곱의 약은피에 속아 축복권을 잘못 행사하므로 좋은 아버지상을 남기지 못했고, 축복의 조상 야곱은 4명의 부인들로부터 배다른 형제를 12명이나 낳게 했고, 요셉을 편애하므로 형제간에 시기와 미움, 갈등을 일으키게 하여 바람직한 아버지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다윗도 밧세바를 탐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고, 배다른 형제들의 왕위쟁탈과 남매간 근친상간,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쿠데타까지 일으켰고, 왕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700명의 후비(왕후)와 300명의 첩과 후궁을 거느리는 일부다처와 우상숭배에 빠져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고 멸망에 길로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등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 위대한 성군, 지혜의 왕이 되긴 했지만,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좋은 아버지상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아버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눅15:11-32)에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아버지상과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산을 받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스스로 돌이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열사안고 환영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탕자이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아버지상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상을 깨닫거나 본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참된 아버지상을 탕자의 아버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고전 2:10-11)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동,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으므로 참된 아버지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참된 아버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참된 아버지상(像)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므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비이민비자(F, M, J) 소지자 불체자 우려

미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불법체류자가 된다. 따라서 F, M, J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은 자신의 체류기간 등 상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 M, 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이 지난 8월 9일부터 발효됐다. 유학생의 경우 종전

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명령(NTA)'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한다. 또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

업이 마친 후 15일간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혹은 귀국을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 의하면 모든 수업이 마쳐진 날짜까지가 체류 허용날짜가 되기에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되자마자 귀국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졸업을 앞둔 경우 자칫 졸업식 참석을 하지 못한 채 귀국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종료일을 길게 잡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체류기간 완료하면 즉시 귀국해야

에는 F비자 소지자가 미등록 등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조건이 전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됐었다. 법적으로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violation of status)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머물 경우 이민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불법체류는 아니었던 것이다.

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포함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때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단 불법체류가 아니라 단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국 후 새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등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언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해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규정한 수업 이수 등을 충족해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 중 유학생 출신들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연방 당국은 201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가 약 7만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이들을 적발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한인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5,111명으로 출신국가별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가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가주영어학교 다니엘 방 매니저는 "이번에 발효된 USCIS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체류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방 매니저는 "학교를 전학을 하거나 학교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모든 수

이 같은 한인 유학생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이 기간 발생한 전체 한인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1만1,700명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중 3,403명은 비자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그러나 9월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된다. 이날 새 규정 발효에 따라, 비자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USCIS나 이민

그는 변경된 규정이 한동안 체류기간 말소일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지적했다. 방 매니저는 "학교를 전학을 하거나 학교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모든 수

전문가들은 규정한 수업 이수 등을 충족해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 중 유학생 출신들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연방 당국은 201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가 약 7만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이들을 적발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한인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5,111명으로 출신국가별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필리핀 쓰레기 마을 어린이합창단 후원 카이로스 남성중창단 초청 음악회

맑은사랑재단(회장 김학정 박사)가 주최한 필리핀 쓰레기 마을 어린이 합창단 후원을 위한 카이로스 남성중창단 초청음악회가 19일 오후 6시 남가주가스펠교회(담임 이원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맑은사랑재단이 후원하고자 하는 필리핀 쓰레기마을 어린이들에 대한 영상이 소개됐으며 카이로스 남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만 바라볼지어라', '복을 세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등의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카이로스 남성중창단은 성악을 전공한 남가주의 각 교회 지휘자 및 목회자로 구성됐으며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이민자들의 삶을 노래로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창단됐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유진벨재단 성금전달식에서 유진벨재단 대표 스티브린트 박사가 성금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하고있다

라크마, 유진벨 재단에 1만불 전달 2018 평화콘서트에서 모금된 성금

라크마(단장 최승호)는 유진벨재단(대표 스티브 린트 박사)에게 성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한길교회에서 19일 오후 4시에 실시된 전달식은 18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8 평화콘서트에서 모금된 성금이다. 스티브 린트 박사는 "유진벨재단은 지난 97년 북한결핵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저희 사업의 주인공들은 후원자들과 북한의 의료진들"이라 소개하고 "북

한동포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저희들을 후원하기위해 성금전달해 주신 라크마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린트 박사는 "결핵은 공기로 전염이 되며 균이다. 결핵환자가 기침을 할 때 기침을 통해 환자의 몸 안에 있는 결핵균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주변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그의 몸 안으로 결핵균이 들어가게 되고 몸 안에 들어가 형성된 결핵균은 잠복기간을 갖는다. 건강한



라크마 주최 2018 평화콘서트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랑의 교류로 조국통일 지름길 되길 라크마 주최 2018 평화콘서트 대성황

라크마(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주최 2018 평화콘서트가 18일 오후 8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대표 스티브 린트 박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유진벨 재단의 사역 영감소개와 라크마웹버 오케스트라의 'Finlandia' 연주로 시작돼 '노나

노비스 파퓌(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를 소프라노 신선미 바리톤 로드 길프리가 라크마 콰이어와 함께 불렀다. 이어 한국 민속음악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테너 박인수, 오위영, 윤길영, 조현호가 무대에 올라 '함수', '신고산타령', '진도아리랑', '새타령', '평화의 나라로'를 불렀다. 특별히 이 무대는 성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졌지만 한국의 전통리듬에 맞

사람에게는 면역성이 강하기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수년에 서 수신후 몸이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지면 잠복해있던 결핵균이 활동하게 되며 폐를 감염시키며 서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린트 박사는 "북한의 경우 일반 결핵환자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전환되는 자들이 연간 8천명정도 된다. 유진벨에서는 연간 3-400명 다제내성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년 1000-1200명 정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임상 라크마 음악감독은 "작년과 올해의 큰 이슈는 남북한의 전쟁과 종전에 대한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평화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평화콘서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음악감독은 "특별히 올해는 베네핏 콘서트로 어떤 단체를 후원할지 찾았는데 최승호 단장의 추천으로 유진벨재단을 만나게 됐다"고 말하고 "음악회를 통해 마련돼 전달한 이 성금이 유진벨재단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필리핀 쓰레기 마을 어린이 합창단 후원을 위한 카이로스 남성중창단 초청음악회가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열렸다

춰 공연이 이어져 마치 마당놀이의 한 장면이 연상됐다.

이어 한국의 가곡무대가 펼쳐졌는데 소프라노 신선미가 '아리아리랑'을 불렀으며 라크마 콰이어와 함께 '고향의 봄'을 불렀다. 그리고 바리톤 로드 길프리가 '청산에 살리라'를 불렀으며 신선미와 라크마 콰이어와 함께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의 피날레는 안익태의 코리아 판타지를 350명의 합창단이 함께 불렀다. 특히 곡 후반부에 어린이 합창단인 LA애플플레이어가 무대 앞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으며 무대상단 대형스크린으로 태극기가 보여짐과 동시에 윤임상 지휘자가 관객석을 향해 서서 지휘를 하며 모두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큰 감동을 줬다.

최승호 단장은 "이번 콘서트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는 유진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유진벨의 희생적인 사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영혼을 구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과 같다. 또한 남한을 통해 정성스럽게 마련된 약이 북한으로 공급돼 실제적으로 돕는 사랑의 교류는 조국통일의 지름길 이 될 것이다"라 말했다.

최 단장은 "오늘 음악회를 계기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민족을 멸하는 총소리가 아니라 유진벨의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의 총소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서초등학교 폐교 향후 대책에 대해 한인사회 공청회에서 김완중 LA총영사가 대책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월서초등학교 폐교 향후대책 한인사회 공청회 학교임대-LA한국교육원 별관-코리아하우스

운영난으로 폐교가 결정된 월서 초등학교 건물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한인사회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 30분 남가주한국학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교건물을 임대해 주자는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 측 입장과 임대를 반대하고 커뮤니티의 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반면 건물 임대 반대하고 이 기회에 학교건물을 커뮤니티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LA 한국교육원 별관으로 운영하거나, 한인사회 컨소시엄 형태로 모금을 통해 개보수하고, 코리아하우스 형태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현재 교육원과 한국문화원 건물에서는 학교수업과 버금가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공간이 너무 좁아 월서초등학교 건물을 교육원과 문화원 별관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건의도 해놓은 상태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거액의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누 트리오...격조 높은 공연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콘서트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설립 35주년 기념 바누 트리오(바이올린 박희선, 피아노 영 탁, 첼로 이성은) 콘서트가 19일 오후 7시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김낙인 목사 기도로 시작한 콘서트는 'One Summer Night', 'Over the Rainbow', 'Moon River', 'Sonata No.12 n e minor, Op3', 'La La Land', 'Gabriel's Oboe' 등 영화 및 드라마 OST와 축복송, 주기도송 등 찬양곡을 연주했다. 그리고 색소폰연주자 케니 황과 찬양사역자 민유기, 조셉 리가 찬조 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빛내줬다.

특별히 바누 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질 때 스크린을 통해 해당음악의 영화 속 장면이 함께 보여줘 이날 공연을 더욱더 격조 높게 연출했다. 김낙인 목사는 "콘서트를 기획할 땐 어떻게 청중들에게 다가갈까 쉽지 않더라. 하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됐을 때 격조 높은 공연으로 흘러가게 돼 흐뭇했으며 좋은 공연을 교회에서 하게 돼서 감사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을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기념 바누 트리오 콘서트에서 바누트리오가 격조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해방73주년을 맞이하여 로스앤젤레스 남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시의회에서 기념식을 지난 8월14일 갖고 선포문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에게 증여했다.

부에나팍 시, 대한민국 해방73주년 기념문 선포식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수상

대한민국 해방 73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4일 로스앤젤레스 남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시(시장 버지니아 로프)에서 기념식을 갖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에게 선포문을 증여했다. 이날 부에나팍 시의회에서 개최된 선포식에는 시의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수한 교육열과 기업열, 교회를 중심한 신앙심으로 도덕심을 높이 평가하고, 협력해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에나팍 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프 시장은 또 7개 항목에 대해 한미관계의 중요한 의미를 발표하며, 부에나팍 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광복의 기쁨을 함께 하며 부에나팍 시의 발전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종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은 "선포문을 준비해준 시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내일 뜻 깊은 광복절행사가 한인회관에서 개최된다"며 시장과 시의원들을 초청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이우호 총회장은 "지난 6월 12일 전세계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비록 작은 도시지만 이 도시가 한국계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선포문을 결의해준 부에나팍 시장과 시의원들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한다"고 답사했다. 이날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고문 최학량 목사, 장순성 목사, 김동욱 목사, 김창호 목사 외에 1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행사 후 오렌지카운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우호 목사 자택에서 모여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장 최학량 목사가 기념사를 한 후 준비한 식사와 다과로 친교를 다졌다.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4면에서 계속)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너희의 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이 복음에 대하여 항상 remember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살아서 사명도, 죽어서 떠나더라도 최후로 남길 유언은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기억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었으며, 베드로는 죽어도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없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면 족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신앙생활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깊이...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동참하시며,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 신앙의 참된 원천적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연구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사도"와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1)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실로암)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애굽의 종,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영원한 형벌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본문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2)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분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자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리게 하고, 속죄의 사명을 감

당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만드신 직분이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주시사, 단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하신 피흘림을 주셨고,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잘못도 부하에게 전가하지만,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체책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5-6). 우리의 흘리진 삶의 정돈은 항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해결의 실마리는 "날 대신하여 대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서부교계 게시판



나침반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설립 20주년 감사예배가 26일(주)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562)691-0691

연합감리교 칼팍연회 한인교회협의회 전체회의 연합감리교 칼팍연회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낙인 목사) 전체회의가 오는 28일(화) 오전 10시30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그랜트 하기가 감독이 참석해 내년에 개최되는 교단 임시총회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626)965-9191

이혼가정 회복세미나 및 자녀회복 프로그램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이혼가정 회복 세미나와 이혼가정 자녀 회복 프로그램을 8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별거나 이혼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며 치유를 경험하도록 진행된다. 저녁 식사와 커피가 제공되며 어린 자녀를 위한 베이비시팅도 마련된다. 교회 웹사이트 www.bkc.org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의: (562)677-5122

뉴라이프선교교회 시니어아카데미 개설 뉴라이프선교교회(담임 김영배 목사)는 커뮤니티 환원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뉴라이프시니어아카데미(학장 이주영 장로)를 개설한다. 가을학기는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주간 교육(1430 E.Orangethorpe Ave, Fullerton)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이며 62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한 학기 등록비는 60달러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4)526-6562, (626)808-7119

은혜로교회 공민 선교사 찬양음악콘서트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는 '놀라운 주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일본(동경) 선교지의 공민 선교사와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 음악 콘서트를 24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10)787-7766

비즈니스 탐방

교회 수련회 및 각종 모임 장소로 최적

물, 공기, 경치가 수려한 엘림 유헤온천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가 좋은 것이 이곳 3대 자랑입니다" 엘림 유헤온천을 소개하는 사장 탠디(Tandy) 정 집사의 첫 마디다. 탠디정 집사는 20년 전에 이곳 데메콜라 유헤온천이 솟아나는 곳에 집 한 채를 마련했다. 온천이 솟는 집을 마련한 이유는 간단했다. 부인 권사님이 유독 온천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에 살고 있던 이들 부부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근처 유헤온천을 찾았던 온천 매니아였다. 그렇게 온천을 즐겨하던 부부는 지금의 엘림 온천 자리에 집 한 채를 구입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지인들이 방문하면 "산새가 너무 아름답고 물이 너무 좋으니 온천장으로 그만이다!"고 치하했고 이 말에 힘입은 탠디정 집사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온천장을 꿈꾸며 다음해가기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엘림 온천장은 정식으로 오픈하기도 전에 입소문에 따라 온천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2년 전에는 비로소 정식으로 오픈했다. 데메콜라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엘림 유헤 온천(Elim Hot Springs) 고도 3,500피트 고산 암벽에서 나오는 천연 유헤수로 수영장과 자쿠지가 채워져 있다. 겨울엔 눈이 내리고 여름엔 샌디에고에서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며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자연경관이 한 폭의 그림 같아, 이 온천은 한번 왔던 이들이 꼭 다시 찾곤 한다고 말한다. 이곳은 가족은 물론 직장, 교회 등 어떤 연령층, 어떤 모임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깨끗하게 꾸며진 교회당은 교회 수련회나 모임을 갖기에 손색이 없게 꾸며졌고 에어컨 시설을

갖춘 가족용 병갈로우가 마련돼 있었다. 방갈로 앞에는 그곳에서 목을 이들이 맘 놓고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완비된 실외 바비큐 시설과 부엌시설도 있다. 또한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도 준비돼 청소년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엘림 유헤 온천에는 조랑말, 염소, 양, 토끼, 공작새 등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소형 아기 동물원이 있어 어린이들의 마음도 사로잡는다. 그야말로 엘림 유헤온천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온천 주변의 자연을 더욱 더 만끽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완비된 실외 바비큐 시설과 부엌시설도 있다. 엘림 온천은 LA에서 2시간, OC에서 1시간 반, 샌디에고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온천주변에는 유명 관광지도 위치하고 있다. 온천사용의 예약 및 문의는 (951) 763-493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언론 무분별 보도 한국교회 비난 키운다

반대파 신도 '복면폭행' 한 대형교회...다수 교단서 이단 판정

“내가 신이라면 대형교회부터 버락으로 붕괴시킬 것이다.” “예수 믿고 싶어도 양아치 목사와 신도 때문에 소름끼쳐서 교회 주변에 가기도 싫다.”(서울 성락교회 기사에 달린 댓글)

사이비 종교단체의 일탈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사들이 이들 단체가 이단으로 지정된 사실을 제대로 소개 않은 채 정통교회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멀쩡한 정통교회까지 비난받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JTBC가 18일 복면을 쓰고 반대파 신도를 폭행했다고 보도한 대형교회는 서울 성락교회다. 김기동씨가 이끄는 성락교회는 다수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JTBC는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대형교회’ ‘원로목사’ ‘예배당’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정통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했다. 신도들을 브라질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박명호의 엘리야복음선교원(현 한농복구회) 보도 때도 비슷했다.

서울 성락성결교회 임요한 행정목사는 19일 “서울 성락교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성도들 사이에선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단 때문에 정통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단들의 반사회적 행태

가 최근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이재복의 만민중앙교회, 신우주의 과천 은혜로교회다. 심지어 종교적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인 것처럼 포장한 여호와 의증인이 정통 한국교회 소속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신도 집단폭행과 해외 집단거주, 성추행, 병역기피 등 사이비 종교집단의 폐해는 현장교회의 복음전도 문까지 막고 있지만 연합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성민 총남아산 사랑제일침례교회 목사는 “유명한 구원파가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소개된 후 전도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금도 침례교가 사이비 단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

다”고 토로했다. 박 목사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라고 교단과 연합단체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연합기관이 적극 나서서 이단의 실체를 홍보하고 이단 관련 보도 매뉴얼도 제공해야 한다. 언론들도 보도 전 한국교회언론회(chpr.org)나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jesus114.net) 등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다수 언론사가 정통교회인 것처럼 포장한 이단의 존재를 알고 있어 보도 전에 자문까지 받는다”면서 “그런데도 일탈을 일삼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정통교회인 것처럼 소개하는 보도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한국교회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많은 빛... '한교총·한기연 통합' 장애물

직원 승계·법인 활용 문제 등 당초 '알맹이' 빠진 합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기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합의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오는 12월 첫 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공 교단, 3명의 공동대표회장 중심의 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통합 계획을 내놨다.

당초 양 기구는 사무실을 합치는 날짜를 다음 달 4일로 확정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한기연의 부채가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무실 통합과 직원 승계, 법인 활용 등 ‘알맹이’가 빠진 채 합의서

가 발표됐다. 통합합의서는 발표했지만 추후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통합합의서 발표 배경을 이해하려면 한기연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한기연은 기구 통합 논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기연의 핵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신 합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지난해 탈퇴해 한교총을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기연은 핵심 교단이 한교총으로 쏠릴처럼 빠져나가자 연간 9억 원 넘는 운영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남은 군소교단의 힘만으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근 사무실 운영 등에 있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조직 유지를 위해 통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의병을 요구한 한교총 관계자는 “한기연에 대해 실사를 한 결과, 예상보다 부채 규모가 훨씬 컸다”면서 “17일 통합을 전격 발표하려 했지만 부채 문제가 크다 보니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많아 원칙적 합의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기연도 현재 직면한 재정부족 문제 앞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권태진 한기연 통합추진위원장은 “한기연 내에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군소교단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를 해도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양 기구의 통합은 한기연이 지닌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들이 그동안 한기연에 납부하지 않았던 미납금 수준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한기연의 부채와 직원 승계, 법인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통합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면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변경한 뒤 기구 통합을 완료한다.

변창배 한교총 대변인은 “양 기구는 내년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3·1운동 중심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이천 기독교1919' 기획전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1919년 3·1운동은 경기도 지역에도 확산돼 그해 5월 말까지 25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경기도는 3·1운동의 산실이었다. 이때 집회 횟수는 303회, 참가인원은 6만8100여명으로 기록됐다. 격렬했던 시위의 양상만큼 일제 탄압도 잔혹해 사망자 1,469명, 부상자 2,677명, 체포 인원수가 4,220여명에 이르렀다. 당시 경기도 민중의 독립의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세 운동을 이끈 사람들 가운데엔 제암리교회 이천을교회 오천교회 등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관장 한동인)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준

비하는 뜻에서 오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대평로 박물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경기·이천 기독교 1919'라는 제목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한동인 관장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이천을 중심으로 수원 양평 등 경기도에서 진행된 3·1운동의 기독교 인물과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회”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3·1운동의 역사 시대적 배경’ ‘한국교회와 기독교 3·1운동의 의의’ ‘경기도의 3·1운동과 기독교’ ‘이천의 기독교 3·1운동과 인물들’ ‘3·1운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과 변천’ 5부로 소개된다.

당시 이병주 연희전문학교 학생회장이 친필로 쓴 ‘3·1운동 체험기’를 비롯해 일제가 민족저항의 의지

를 쥐기 위해 조선에 세워 운용했던 ‘조선형무소 사진첩(1924)’ 등 실물자료 40여점과 초기 기독교회사 사진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경기도 중에서 수원군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만세 운동이 전개된 곳이다. 특히 제암리교회 사건은 3·1운동 기간에 일어난 일제의 만행과 우리 민족이 받은 수난의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중심엔 교회가 있었다.

이천 만세운동은 신둔면 일대와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청미면, 대월면, 부발면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경기도 만세 운동이 3월 초에 시작된 것과는 달리 이천에선 3월 말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지역 곳곳에서 전개됐다. 3월 30일 마장면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군중이 만세를 불렀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천도교인 등 종교계 인물과 지식인, 학생이 주축이 돼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4월 2일 이천 장날을 기해 장군이 범석대는 가운데 문건식이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

을 주도했다. 3월 29일 읍내교회당에 모이기로 했다가 거사가 중단됐으며 4월 2일 밤 이천읍 만세운동으로 21세의 함규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3·1기미 독립선언에 가담한 김세환 목사와 친분이 있던 이강우 이천교회 목사는 이천읍 시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몽골여주, 양평 등에서 더 발굴돼야 할 기독교 3·1운동의 이야기가 산재해 있다.

이인수 학예연구실장은 “이천시 도자예술과 점목시킨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도판에 새긴 민족사랑, 나라사랑’ 행사와 3·1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를 목판에 탁본해서 만드는 태극기 만들기 행사도 진행된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민족운동의 아픔과 함께 한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의 숭고한 역사와 정치적 가치를 대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이 하나되는 새 역사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

교계, 정·계계 인사들 국회사 광복절 기념식 및 통일 기도회

교계와 정·계계 인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제73주년 8·15 광복절 국회 기념식 및 한반도평화통일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3·1운동UN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제단 및 한국교계-교회평신도5단체 협의회(이사장 김영진 장로)와 전국노인기독신우회(이사장 이강호 목사), 한민족통일연합회(이사장 원종문 목사)가 주최했다.

이강호 부산 푸른초장교회 목사는 “일제강점이라는 질곡과 어둠속에서 우리 민족을 광복시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민족이 하나 되는 정의와 평화의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개회 기도를 했다.

소강석 용인 새에덴교회 목사는 평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역사는 고난과 통곡, 갈라짐, 전쟁의 역사”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 다음세대에 향기로운 평화의 꽃밭을 물려주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김영진 장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제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며 “8·15 광복절과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채의송 국가조찬기도회장은 “오늘 기도회에 모인 500여 기독인이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공단체 구성부이사장과 김홍국(취학회 회장) 등이 각각 한반도 평화통일과 3·1운동 유엔(UN)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특별 기도했다.

광복절 맞아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 비전 선포

로렌 커닝햄 목사 등 성도 1만1000여명 참석

‘청년, 예수로 일어나라!’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비전선포식이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광복절을 맞아 모인 대학생 청년 전문인 사역자 등 신자 1만1000여명은 “대한민국은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에 전 세계로 나아가 희망의 전도사가 되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초일류 대한민국” 등 비전 선언문을 함께 외쳤다. 강사로 초빙된 국제예수전도단(YWA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한국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7년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한국 젊은이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강연에서 YWAM의 몽골 선교 비전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선교를 소개하면서 ‘한국인 1000명이 필요하다. 몽골의 60만 가정을 방문해 몽골어 성경을 전

달하고 예수영화도 상영할 것’이라며 “선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 격려했다.

라이즈업네이션스 정근모 장로는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 21세기는 한국이(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봉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구축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월드뷰’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역사적 맥락으로 설명했고 그는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시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키자”고 말했다. 비전선포식은 라이즈업네이션스와 한국대학생선교회, GDEW, 해비타트, 월드뷰 등 15개 단체가 주최했다.

국토 종단 ‘2018 국토기도대장정 위두웁’ 해단식

160여명 22일간 500여km 통일·한국교회 회복 기도

광복절인 15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사파리모자에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청년들이 공원에 속속 모여들었다. 35도에 육박한 날씨 탓에 온몸이 땀으로 젖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행군 마지막 코스에 도달해서인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21박 22일간 국토를 종단하며 기도한 ‘2018 국토기도대장정 위두웁(we do walk)’ 행군단원이다. 위두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장 윤기순 목사) 청년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2011년부터 매년 국토를 종단하며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다. 올해 주제는 ‘70년 통일문 여소서’로 구간별 부분 참가자를 포함해 160여명이 동참했다.

지역별로 부산, 여수, 고성, 강화 등을 출발해 대장정 종착지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집결한 단원들은 ‘임진각 통일집회 및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설교한 이강준 예성 총무는 “아직 통일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며 기도했듯 주님께서 평화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며 “국토기도대장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며 사는 청년이 되자”고 격려했다.

500여km에 달하는 대장정에 오른 단원들은 하루 평균 28km를 걸었다.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 오전 4시에 기상해 새벽예배를 드린

뒤 걷기 시작해 한낮엔 쉬고 오후 5시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숙식은 전국 교회 72곳에서 해결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 집회도 열렸다.

기독교청년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국토대장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응원하러 온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다. 14일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임현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가 단원들을 찾아와 설교하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에게 이번 대장정이 삶과 신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태극에서 온 박지석(18)군은 “부모님이 선교사라 한국에서 산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를 더 잘 알게 됐다”며 “행군하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도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지나(21)씨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덕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군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힘든 상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회인 위두웁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위두웁 미니스트리는 향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국토기도대장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후임에

미국 기쁨의교회 김주용 목사 청빙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청빙위원회가 이성희 담임목사 후임으로 미국 시카고 기쁨의교회 김주용(43·시인) 목사를 청빙키로 했다. 청빙안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다뤄진다.

김 목사는 성균관대와 장로회신학대, 시카고 루터란신학교 등에서

수학했다. 서울 연동교회와 평양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미국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와 한인서부교회 등에서 부목사를 지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이 목사는 1990년 연동교회에 부임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2)표현의 자유 옥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기독교인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NAP 독소조항 개정운동에 착수했다. 4회에 걸쳐 NAP 독소조항이 가져올 피해를 살펴본다.

동성애·이단 비판에 ‘법적 재갈’ 물릴 우려

교계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했던 이유는 문제인정부가 NAP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발상

‘성평등’(gender equality)이 한 국가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철학적 기반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

벌적 손해배상, 형벌 등으로 잘못된 문화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어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집단을 보호하고 어떤 행위를 통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진다.

2007년부터 8차례 제정시도가 있었던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지향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영역은 성별 인종 피부색 등 17개 영역과는 달리 윤리·도덕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다(표 참조). 사회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양성에 다자성에 근친상간 소아성에 등 부도덕한 성행위와 신전지, 과격 이슬람은 비판의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승격’된다. 정당한 구분조차 차별행위로 전락한다. 타인의 언어표현이나 눈짓도 수치감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면 차별행위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국내 동성애자와 사이비 종교 신도, 과격 이슬람들은 미국 흑인노예나 독일 유대인처럼 극심하고 명백한 탄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야 윤리, 도덕 측면에서 동성애, 이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고 정당한 표현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제 가능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때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특히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발생할 때만 제한할 수 있다.

동성애와 이단, 과격 이슬람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한다. 반면 동성애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단과 과격 이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애국된 종교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차별논리를 펼친다. 설사 잘못된 표현이 있어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준(準)차별금지법까지 있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성급한 차별금지, 인권논리로 일체의 표현을 차단시킨다면 언론 양심 종교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저항과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의 창 (107)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고(故)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

우리 개신교에서 현대선교를 말할 때 랄프 윈터 박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2005년 타임지는 윈터 박사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2008년 북미 선교 지도자회의는 그가 선교학 발전에 남긴 업적을 기려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는 확실히 20세기 후반,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교계의 거장이었다. 그는 선교사이자 선교 훈련가, 선교학자로서 30여년을 세계 선교에 헌신해왔다. 그는 선교전략,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깊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선교적 과업을 명확히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밑바탕으로 세워진 선교 전략들은 지금도 여러 선교지에서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1세기 선교는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교회는 안, 밖으로 많은 도전 속에 있다. 고인이 살아 있다면 우리 선교계에 큰 방한타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비록 윈터 박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선교 이론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 생애

랄프 윈터 박사는 1924년 LA에서 휴고/헤이젤 윈터 부부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공학 기사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 입학했다. 이후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을 거쳐, 코넬 대학교에서 언어학, 인류학, 수학통계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신학 교육은 프린스턴 신대학원에서 했다. 대학원을 마치고 전 그는 간호사 훈련을 갖 마친 로베르타 헬름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나중에 고퍼달라 의 마야 인디언 선교에 헌신해서 10년간 일하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로 사역 중 맥가브란 박사의 초청으로 풀러(Fuller) 신학교에서 선교대학원 교수로 10년간을 재직했다.

윈터 박사는 풀러에서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했다. 윈터 박사는 만년에 로베르타 여사와 사별한 후 바바라 여사와 재혼했다. 그는 암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선교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0일 밤 9시경 캘리포니아 주 파사데나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4세로 영면했다.

2. 사역

윈터 박사는 역사적 모임으로 기록된 1974년 제 1차 로잔대회에서 미전도종족과 미개척지의 중요성을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가 있으며 편저로는 "퍼스펙티브스1, 2"가 있다.

3. 지적

윈터 박사는 2011년 11월 방콕에서 개최된 ASM(Asian Society of Missiology, 아시아선교학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이 때 서구선교의 실수 12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선교가 향후 서구 선교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모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학교가 아닌 성경학교를 설립 ②땅 위의 천국"이 아닌 "천국에

전방개척선교 운동의 두 대표적 쟁점(Issue)을 통해 세계선교계가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게 했다.

셋째로 교육가로서 역할이다. 북미 최대의 선교집회인 Urbana 73에서 선교에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해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고안한 이후 30년 동안 이 훈련이 지속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사도적 열정을 가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왔다.

넷째 행정가로서 역할이다. 하나님님이 주신 상상력을 따라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하게 된다. 그 때 그 캠퍼스를 구입하는데 1,500만 달러가 필요했는데, 수중에 있는 돈 100달러를 계약금으로 치루고, 나머지는 수년간 모금해서 충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 했다.

맺음 말

세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주모에배에서 "저는 이 분을 거의 40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교인들을 위해 자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렇게 오늘의 시대를

윈터 박사는 현대선교를 이끌어 온 거장이었다.

그의 대표적 이론은 미전도 종족 개념과 전방 개척선교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윈터 박사의 선교이론을 소화하고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으로 알렸다. 이후 1976년 설립한 미국세계선교센터와 윌리엄케어대학교(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를 가지 삼아 전방개척선교 운동을 전개하며 세계 선교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윌리엄케어국제대학(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케어출판사(William Carey Library), 미국선교학회(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개척선교회(Frontier Fellowship), 개척선교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글로벌기도다이제스트(Global Prayer Digest), 퍼스펙티브스 훈련과정(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등을 창립하고, 장간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세계선교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윌리엄케어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섬겼다. 또한 전방개척선교회(FMF: Frontier Mission Fellowship)의 대표로 헌신하는 동시에 저술에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선

의 구원'만을 강조 ⑥교단이 선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선교사를 직접 파송 ④전문 선교보다 일반 선교에만 치중 ⑤현지의 헌신적인 신자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르며 서구교회와 동일시하게 함 ⑥선교사 없이 물질만 후원 ⑦장기 선교사 대신 단기 선교사 파송 ⑧선교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함 ⑨질병의 근절이 아닌 치료로 그림 ⑩전쟁이 아닌 평화만 생각함 ⑪과학을 적대시함 ⑫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복음전도"

4. 평가

그의 공로는 첫째로 이론가로서 역할이다. 선교라는 어려운 주제를 체계화하고 저변을 넓게 했다. 그는 선교신학 측면에서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구분하면서 전략적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을 균형 있게 정리했고, 세계복음화의 남은 과업을 명확히 하면서 교회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로 선동가로서 역할이다. 교회의 선교 방향을 선화하도록 유도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의와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각인시켰고 동원되도록 길을 제시했다.

그의 비범함은 세계선교를 내다보는 혜안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정립을 했으며 나아가 본인이 삶의 마지막까지 강조해온 전생활양식(warlike lifestyle)의 실천에 있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전략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남긴 것은 단 두 벌의 양복과 구두가 전부였다. 그는 세계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략적인 검소함을 추구하였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선교 지략가였음에 틀림없다. 앞으로 세계선교를 위한 미완성 과업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엇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랄프 윈터 박사의 이상을 품고 세계선교를 위한 바톤을 이어가야 한다. 제2, 3의 철출어람(靑出於藍)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jsong007@hanmail.net

2018년 뉴욕원주민선교회(NYNAMA)의 여름 선교보고

-Native American 2018 Summer Mission Report-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뉴욕원주민선교회는 미네소타 원주민보호구역 4곳(Onigum, Sugar Point, Ball Club, S Lake)과 위스콘신 원주민보호구역 3곳(Red Cliff, Bad River, Lac Du Flambeau) 등 7개 구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뉴욕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회장: 이재봉 목사, 총무: 함성은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와 이사 김기호 목사, 박준열 목사 등)들과 한인 1.5세-2세 목회자(Rev. Daniel Kim, Rev. Sam Lee, Pastor Mark Park, Pastor Paul Yon, Pastor Issac Kim, Pastor Jin Park 등)들과 각 지역 순장들(Jennifer Kim, Jenny Suk, Paul Yon, David Lee, Yun Choi, 민경수 장로, Rachel Kang)과 각 팀의 대원(10명-15명으로 구성)들로 구성된 총 110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금년 선교는 뉴욕원주민선교회가 2003년에 창립되어 13년 동안 선교한, 성년의 때가 되어 모든 참가 선교사들의 헌신이 새롭게 되었다. 금년에는 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팀들도 동행



하였고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선교하였다. 뉴욕원주민선교회는 선교지에 출발하기 전에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뉴욕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에서 모여 매주 선교 훈련을 실시하였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원주민 보호구역의 선교를 담당할 각 지역 책임자와 목회자, 후원자와 팀원들이 선교 전략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매년 떠나는 선교지만 2018년은 새로웠다. 7월 30일 오전 3시에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각 팀은 밤을 새우며 준비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목회자 선발대(5명)가 큐가든성신교회(이재봉 목사) 밴드와 행사 진행 물품을 입고 7월 29일 밤에 출발하였다.

목회자들은 각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사명감과 기쁨으로 1차 선교대원 집결지인 시카고그레이크교회(원종훈 목사)를 향해(편도 900마일) 출발하였다. 선발대원 목회자들은 현지에서 응급 상황 처리/물품 보급/자문과 기도와 상담을 하면서 매일 300-600마일 거리를 오고 가며 봉사하면서 모든 선교팀원들을 격려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ail: 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ail: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토) Tel: (213)388-2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ail: 제일교회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un.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0:00 목회목사(영양):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토요일학교: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ail: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4010 / F: (949)854-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청소년예배: 오후 1:2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atten Pl., Anaheim, CA 92801 www.bic.org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디아스포라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품어준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하 맥스 권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성년인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b@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조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전: 오전 2:00(대학부) 수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오션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니침례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c.com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화-토)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토런스노인교회  담임목사 : 김구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청매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과 삶



하형록 목사 (갈보리비전교회 담임, TimHaahs 회장)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3)

스물아홉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른셋의 어느 날 그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심실빈맥'이란 판정을 받고 생사를 오가야 했던 그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TimHaahs)'을 시작했고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로 쓰임 받고 있으며 현재 갈보리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글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에 수록된 간증을 발췌 정리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규모가 크면 창업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역 중에서 누군가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시 내가 가장 젊은 중역이었으므로 열심히만 하면 미국 굴지의 건축 설계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물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계산도 했다.

목표와 돈이 보이자 나는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쫓다 보니 아무래도 돈보다는 명예와 직위에 욕심이 더 생겼다. 회사 대표가 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 이만큼 이 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세상에 명예와 부를 향해 나의 몸을 불살랐다. 심장에 이상이 오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고 성공을 확인했다.

한편으로 나는 나 자신 말고도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한성병 환자촌에서 13년을 섬기신 것을 포함해 평생 목회자로 헌신하셨다. 당연히 그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종은 3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나는 일이 잘 풀릴 때 마다 '아, 아버지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까지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생각했다. 그런데 1991년 가을, 뉴욕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질주하는 나를 잡아 세우셨다.

(정리: 이성자 기자)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달리다

건축회사에 취직 한 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듯 매년 승진을 거듭해서 마침내 20대 말에 중역이 됐다. 사람들은 이민자가 미국의 유명회사에서 파격적인 승진과 성공을 하게 된 비결을 묻곤 하는데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간 당황스럽지가 않다. 특별히 비결이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상사가 10개 하라고 하면 11개를 했다. 지시한 것보다 항상 더 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승진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무슨 각오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면 상사나 동료들이 기뻐하는 것이 좋아서 그랬다. 그들의 반응이 나를 더 일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좋았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떠 오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컵에 물을 부어서 갖다 주지만 나는 뱀까지 쫓아서 가져갔다. 그러면 어떤 상사라도 특별한 대접이라도 받은 양 기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언 31장 24절에서 상품에 피를 달아 보내는 그 일을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

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다.

일을 할 때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 나는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일을 마쳐서 상사의 책상 위에 갖다 놓곤 했다.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미리 진행 과정을 보고해서 상사가 두 번 세 번 묻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건 고객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새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장이나 나를 먼저 찾았다. 그런데 당시 사장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질투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날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스물다섯이나 많고 사회 경험도 그 만큼 더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나 말고 자네를 찾는 거지? 그 비결을 좀 말해보게.”

나는 잘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댔다. 그러자 사장은 그냥 물러서지 않고 내가 다른 직원들과 다른 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첫째, 내가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 둘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프

레젠테이션을 참 멋있게 해낸다는 점, 셋째, 묻기 전에 미리미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서 안심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객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무척이나 흡족해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후로 매년 나를 진급시켜 주어 29세에 회사 중역에 오르게 했다.

회사라고 인종 차별이 없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색인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면 미국인들은 당연히 미국인을 고용한다. 하지만 미국인이 10개를 할 때 11개를 하면 미국인이 아니라 유색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위키 파킹 컨설턴트는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상당히 큰 회사다. 내가 29세에 그 회사 중역이 되었을 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40대는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50-60대였다. 서른도 안 된 사람은 오직 나 하나 밖에 없었다.

그때 머리를 굴려 보니 대략 10년 후면 그 회사의 회장이 될 수도

<13면에서 계속>

금년도 예년처럼 시카고그레이스교회는 교회 건물 전체를 활짝 열어 뉴욕원주민선교회 단기 선교팀을 환영하면서 김밥 150개도 제공해 주었다. 뉴욕원주민선교회들은 시카고그레이스교회에서 머물며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 예배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였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그레이스교

회에서 함께 간증과 각 팀의 선교 보고를 나누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 하며 원주민선교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선교에 참여한 동기와 훈련 받을 때 갖게 된 마음과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이 시간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원주민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선교의 비전을 더욱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각 지역에서 한글과 오지브어(Ojibwe)를 서로 가르치며 배우고, 함께 운동하며, 아트 메이킹, 네일, 찬양, 보수 작업(Repairing), 중독(Addiction)치유 교육, 한국 음식 만들기과 나눔, 전통 춤, 태권도, 기념사진 촬영과 프레임 만들기, Jesus T-Shirt &

한국 국기 만들기, 캠프 화이어 등을 통하여 예수 사랑을 나누었다.

인디언보호구역 중에서 한 지역(Bad River)에서는 복음 제시를 통해 11명이 예수를 영접하여 앞으로 교회 설립 가능성을 열게 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뉴욕원주민선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배성현 목사(Rev. Daniel Sunghyun Bae)를 원주민 선교사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변비의 치료방법

변비를 오랫동안 앓게 되면 식욕을 잃을 수 있고 만성적으로 변을 볼 때 출혈을 한다든지 치질이 악화되는 등의 불편한 점이 많다. 심하면 변을 볼 때 복강내 압력이 매우 높아져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등 생명에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 울수도 있고 장이 꼬이는 현상인 장중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로만성변비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섬유질의 섭취량과 배변의 양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사과, 배, 복숭아, 체리, 건포도, 포도, 팥콩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배변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에는 장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후에 배변을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복용하는 약이 흡수 변비를 악화시키지 않는지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이런 비약물적인 방법으로도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팽변성 하제(bulk forming laxatives)는 차전자(psyllium 사일리움이라는 식물 씨앗의 껍질로 만든 장운동 조절 제제) 열매나 메타무실(metamucil) 등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하면 배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배변을 도와준다. 부작용을 거의 없지만 효과가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비를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한다.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물로는 도큐세이트(docusate) 제제가 있는데 이는 대변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수분이 쉽게 대변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면서 대변이 부드러워지게 해준다. 이 제제는 다른 변비약보다 부작용이 적어 장기간 쓸 수 있다.

강한 변비약으로 흔히 쓰이는 적극성 완하제는 돌코락스(dulcolax)라는 이름으로 경구 혹은 좌약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장기간 쓰게 되면 저 칼륨증이나 장이 무력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삼투성완하제는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장내 수분을 증가시켜 배변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락툴로오스(lactulose), 마그네슘제 등이 있다. 락툴로오스는 간경화증이 심한 환자에게 변비로 인해서 간성혼수가 오는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경구용 변비 치료약으로 듣지 않는 심한 변비의 경우 관장을 할 수도 있다. 관장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배변 반사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행동요법의 하나인 바이오피드백이나 수술적인 방법도 특수 상황에서는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도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는 대장 검사를 해서 대장암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Food in Bible-꿀(Honey) (2)



최성은
(Ph.D, RD, 쿼츠칼리지 교수)

꿀의 치료 효과는 즐거움을 주는 말이나 지혜와 비교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꿀이 지닌 달콤함과 훌륭한 맛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16:24.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고 네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연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좋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24:13-14).

꿀이 달콤하고 먹기에 좋다는 점은 성경 전체에서 예시적으로 사용된다("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잡인 5장에서는 "낮선 여자"가 자기의 매력과 매끄러운 말로 남자를 매료시켜 빠지게 할 수 있는 성적 부도덕의 유혹을 송이꿀의 달콤함을 들어 예시한다("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속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자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잠5:3-5).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 땅이 벌들이 만드는 꿀뿐 아니라 과일도 풍부하게 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

속 왕의 아들 요나단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찌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입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삼상14:25-30).

그러나 설탕과 꿀 모두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꿀은 설탕보다 폭속에서 "조금 더 느리게" 분해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는 아니기에 설탕을 꿀로 대체하는 것의 영양적 이득은 그다지

**설탕을 꿀로 대체하는 영양적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아
꿀의 항산화력은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

같더라", 겠3:2-3.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10:9-10.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119:103).

솔람미 소녀가 하는 말이 훌륭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꿀방울에 비유하기도 한다("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향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4:11).

송이꿀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러한 꿀은 맛과 당도와 농도가 공기 중에 한동안 노출되어 있던 꿀보다 뛰어난 것으로 생각된다("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19:9-10).

꿀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너는 꿀을 만나거든 죽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25:16). 그러럼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비교되어 있다("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잠25:27).

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3:8.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20:24.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8:8.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 하리라", 신11:9.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시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은 광야에 헤매었더니", 수5:6).

꿀의 성분과 효력

꿀의 주성분은 과당(fructose)이고 미농무부의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꿀 한 티스푼(7g)에는 21칼로리가, 정제 백설탕 한 티스푼에는 16칼로리가 포함되어 있다. 영양학자들은 꿀이 설탕보다 약간 더 달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기력을 북돋아 주는 꿀의 특성은 사

크지 않다고 한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과 오트밀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꿀에는 비타민 C,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들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지만 백설탕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 과학자들은 특별히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손상을 늦출 수 있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꿀이 이렇게 좋은 비타민, 미네랄들과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기에 피로회복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위에서 언급된 성경구절에서 보듯이 요나단이 피곤해 되었을 때 꿀 조금을 맛보고 눈이 밝게 된 것이 아닐까(삼상14:29).

하지만 이러한 꿀의 항산화력은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것으로 밝혀져서, 항산화력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제 백설탕보다는 낫지만 모든 감미료 중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당밀(molasses)은 꿀보다 더 많은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꿀의 1회 섭취량당 항산화제가 적포도주, 블루베리, 호두 등 기타 항산화 식품보다 훨씬 적다고 말한다.

cse1001@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솔로몬이 여호와의 사랑하고(왕상3:1-3)

오늘 솔로몬이 누린 이 형통함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모든 왕들과 바쁘게 만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철저하게 그 중심에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그 마음이 끝까지 식지 않았습니.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는 미완료시제로써 하나님

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그의 나라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지역사회가 잘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화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왕상3:1-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걷습니다. 3절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행하다"는 뜻은 "그 길을 걷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특징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면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수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왕상3:3-4)

또 한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겁니다. 솔로몬이 제사했다는 데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는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요 둘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는 희생제물을 통째로 제단위

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자원해 완전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나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매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목 제사하며 분향하더라(왕상3:3-4)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분향도 역시 나를 태워 그 향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 네게 무엇을 즐기고 너는 구하라(왕상3:5-6)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즐기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보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비 다윗왕에게 큰 은

혜를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살 것이라는 감사와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왕상3:8-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즐기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마음이 흡족하셨습니.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습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구

한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시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의 소원과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금요기도회: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엘파소델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인/터/뷰

인도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 원장

그레이스 데이빗 선교사

“상담으로 출발, 복음전도로 마무리”

“현재 인도는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해 박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제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요.”

인도 남서부 케랄라 주에 위치한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의 원장 그레이스 데이빗 선교사는 복음전파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인도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자신을 통해 미약하나마 복음이 심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한국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 목사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그레이스 선교사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영향으로



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 중 무슬림들은 가장 마지막에 저희를 찾아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무슬림 사역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주술과 마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문제를 막는다는 의미로 내담자의 손목을 끈으로 묶기도 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이슬람권과 힌두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여성 인권이 유린당해 고통 속에 처해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 가고 있기에 사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슬람법은 철저히 남성중심이며

모디 정권 기독교 박해로 기독교 NGO 모두 철수 일부다처제 사회체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 위로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도의 모디 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교회와 핍박당하고 있고 기독교는 발붙이기 힘들 정도로 박해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수상이 된 모디는 인도헌법을 고쳐서 인도전역을 힌두교화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물론 기독교 관련단체까지 억압하고 있으며 젊은 목회자들을 체포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석방을 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난입해 예배 중에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교회를 방화하기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은 살해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이 중단됐으며 4년 전에는 한국교회의 지원도 끊어졌다. 국제기구인 컴패션과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들 역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2017년 1월부터 인도내 거주중인 모든 외국인선교사와 기관들은 철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통해 인도를 치유하고 계신 듯 하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힌두권과 이슬람권의 문화가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일부다처제를 인정한 이슬람권의 경우 얼마든지 남편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기도 하나가요.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속에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처받은 자들이 저희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를 찾아옵니다.”

이슬람의 가족제인 일부다처제는 인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레이스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케랄라 주는 남자가 7번까지 결혼이 가능한데 결혼하게 되면 먼저 결혼했던 아내는 쫓겨나게 되고 자녀들 역시 쫓겨나 고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처로 인해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은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될 때쯤엔 복음을 가미한 상담을 하게 된다. 작년의 경우 그가 상담한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주님을 받아들였으며 제자를 삼는 일도 일어났다.

“저희 센터는 주로 목회자들을 교육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공부를 통해 상담기법을 소개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는 여성 3명과 남성 1명으로 구성된 4명의 스텝이 그레이스 선교사와 함께 사역에 임하고 있다. 14명의 훈련생이 현재 센터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과정은 1년으로 한 학기 6개월 과정

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탈라크(이혼)이라는 말을 3번 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기도 해요. 한번은 이혼위기에 처해있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대화를 통해 이혼이 취소됐고 가장이 원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아내 되는 분이 저희센터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수료식에는 친척들이 참석해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인도가 지난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의회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선교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었지만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데 모디 정권 출범 후 기독교박해국가가 됐으며, 앞으로 사역이 더욱 더 확장돼 복음전파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임하고 싶으며, 현재 MBA과정을 밟고 있는 조카가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 사역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gracecounselingcenter@gmail.com (박준호 기자)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3)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성경적 광고 전략(2)

광고 매체의 선택

광고 산업에 있어서 광고주는 광고 매체의 시간과 공간을 돈으로 산다. 이러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Target)고객에게 도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특정광고 매체에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성경적 책임이 있는가? 성경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유익한 생활을 증진시키고 음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고전 6:9, 벵전 4:3).

특히 성경적 원리를 광고 매체에 적용한다면 올바른 광고 매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성경에 위반되는 일을 행하는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다.

특정한 종교 매체에 광고를 하기 부담스러운 광고주들은 공익광고 매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미국에서 행해지는 가장 좋은 형태의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체는 공익 광고에 전혀 돈을 요구하지 않고, 광고 대행사 또한 자비로 광고를 제작한다.

The American Red Cross, United Way, Smokey the Bear 등이 많은 광고를 제작해온 업체들이다. 타인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광고의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인 분야에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다.

특히 기독교 광고전략에 있어서 직접적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간접광고전

광고가 부정직할수록 사회에 파멸의 씨앗 심는데 일조 올바른 가치관 가진 광고 제작하고 올바른 매체 선택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한 예로, 미국가정연합회가 주도한 광고 매체에 대한 압력은 감각적 잡지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게 하게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크리스천 기업가에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전문적인 성경적 광고 전략

전문적인 성경적 광고전략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 중, 장기적 목표와 종교적이고 공익적인 광고에 중점 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올해의 판매량을 설정하고 다음 해는 고려하지 않는 매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직률이 높으므로 광고전략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들도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의 영업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공익적인 광고를 만드는 전략이다. 일부 광고주들은 종교적 프로그램과 인쇄 매체의 후원에 있어서 매우 모호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마치 광고주가 한 특정한 종교 단체를 후원한다면, 다른 종교 단체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특정한 종교 매체를 후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마치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것이 낫다”는 격언이 그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천 광고전략가들이 넘어야 할 산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강구해야 한

략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 내용에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시켜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지만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광고는 하나의 사업이다. 따라서 광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광고전략에 의해서 정직한 광고는 사회에 유익을 준다. 광고가 부정직할수록 그것은 우리 사회에 파멸의 씨앗을 심는데 일조하며, 더 나가 문화적 타락을 부추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타락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광고 사업영역의 밖에서 찾아야 한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광고주와 광고를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크리스천 기업가는 광고전략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올바르지 않거나 속임이 있는 광고는 바른 광고가 아니다.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타일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매체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광고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하거나 사회와 문화를 잘못된 영향을 미치거나, 기독교에 대해 저항하는 매체에 대한 광고 제한을 해야 하며 이러한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항의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제공하는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광고전략에 있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공익광고 전략을 통해서 기독교문화가 전파되도록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dr.jameskoo@yahoo.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